I·SEOUL·U
너와 나의 서울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S POLICY SHARING INITIATIVE

04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역사 및 현황
1 일반현황
2 서울의 특징
3 서울에 대한 국제적 평가
4 스마트 도시 서울
5 주요지표
6 행정조직현황
7 한눈에 보는 서울시 예산 2019년도 (부문별)
8 서울의 역사

16 서울의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1 압축도시, 서울
2 서울의 주택
3 도시개발사례
4 서울의 도시계획

28 서울의 교통과 환경
1 서울의 교통 정책
2 서울의 에너지 정책
3 서울의 폐기물 정책
4 서울의 상하수도 정책

48 서울의 안전과 행정 서비스
1 서울의 도시안전
2 서울의 전자정부서비스

58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공유사업

A SMART GREEN CITY,
SEOUL

A SMART GREEN CITY, SEOUL

급속한 경제 성장과 도시 발전을 이룬 서울은 천만 시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의 터전으로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를 지향합니다.

한반도 서쪽 중심부에 위치한 서울은 도심을 관통하는 41.5km의 한강과 전체 면적의 27%에 이르는 풍부한 녹지공간을 품은탁월한 자연 환경을 갖춘 도시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600년 수도로서 오랜 역사를 지닌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이자 국내 총생산의 23%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1,500만 명의 외국 관광객이 서울을 찾았고, UIA 기준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국제회의가 개최된 국제적인 도시 서울은 미국 럿거스 대학교(Rutgers University)에서 전 세계 주요 도시 1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정부 평가에서 2003년 이래 7회 연속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스마트 도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서울이 오늘날과 같은 도시로 성장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50여 년 전만 해도 전쟁 폐허였던 서울은 1인당 GNP가 82달러에 불과한 가난한 도시, 환경오염과 전염병 등으로 고통 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종전 후 불과 3~40년 만에 서울은 인구 1,000만 명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대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슬럼, 주택 부족, 물 부족, 쓰레기, 교통 체증, 치안 문제 등 각종 도시문제를 단시간 내에 해결하고,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이러한 발전 경험과 지식은 도시화를 시작하는 많은 도시들에게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발전 경험과 지식을 세계도시와 나누는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 협력도시 역량강화 프로그램, 정

책컨설팅, 전문가 파견, 온 · 오프라인을 통한 지식공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은 WeGO, CITYNET, ICLEI 의장 도시로서 세계도시 발전 의제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UN ESCAP, CITYNET과 함께 '세계도시 정책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세계도시의 지식 공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노력이 세계도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2019. 12 –

〈상세정보 : 서울정책아카이브 (www.seoulsoultion.kr) 제공〉

01.
일반현황

서울은 산과 강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인구 천만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이러한 서울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최첨단 ICT 기술을 도입하여 교통, 물 관리, 도시안전 등 도시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치:** 한반도 중앙에 위치한 분지 형태 도시
- **인구수:** **10,049,607**명(2018. 4/4분기)
- **면적:** **605.24** ㎢
- **주요 하천 :** 한강
- **주요 산 :** 남산,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우면산, 불암산 등 26개

02.
서울의 특징

도시 형태 | 압축형 도시
인프라 투자비용 ▼, 걸을 수 있는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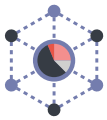
도시안전	전자정부	교통
안전한 도시	스마트한 도시	대중 · 녹색교통 도시
세계 안전도시 3위 (Numbeo)	전자정부 세계1위 (Rutgers University)	대중교통 이용률 66%, 에너지 절감, CO_2 저감

에너지	물관리	폐기물
친환경 에너지절감 도시	세계적인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도시	자원이 순환되는 도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ISO 22000 국제인증, 실시간 수질관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68%, 폐기물 자원화

03. 서울에 대한 국제적 평가

- 세계도시전자정부 평가(미국 럿거스대학교) 7회 연속 1위(2003 ~ 2016)
- 국제회의 개최 (UIA 2018) 3위
- 글로벌 도시경쟁력 (일본모리재단 2017) 세계 6위
- 세계스마트도시 (미국 〈Forbes〉 2017) 세계 7위

04. 스마트 도시 서울



ICT를 통한 24시간 도시 관리

도시안전
- CCTV 통합관제센터
- 재난대응 시스템
- 우범지역, 재해지역 실시간 모니터링

교통
- 지능형교통시스템 (TOPIS)
- 교통상황실시간모니터링
- 대중교통정보제공
- 불법주정차단속

물관리
- 아리수 통합시스템
- 서울 water now
- 홍수방지시스템
- 상수도 수질 실시간 모니터링
- 상수도 주요시설관리
- 하천 수위 실시간 모니터링

행정
- 다산콜센터
- 응답소
- 전자세금납부
- 스마트불편신고
- 24시간 민원상담, 처리, 생활안내
- 디지털시민 시장실

05.
주요지표

인구
1,004 만 명

총 인구수 10,049,607명
(2018. 4/4분기)

인구밀도
16,728명/㎢(2018)

가구 수
3,792,104가구(2018)

산업 경제
372 조 원

지역내총생산
372,110십억원(2017)

사업체 수
822,863개(2017)

도시발전과 주거
364 만 호

주택 수
3,644,101호(2016)

주택 보급률
96%(2016)

공공임대주택제공
294,227호(2018)

문화/관광
1324 만 명

외국인 관광객 수
1,324만 명(2018)

국제회의 개최건수
526건(2016)

공공도서관
160개(2017)

문화재
1,770개(2017)

복지
26 만 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
264,227명(2017)

사회복지시설 수
인구 10만명 당 7.51개(2015)

국제교류
58 개

자매 우호 도시
68개(2019.2)

국제기구 유지
36개

환경

16.4㎡

1인당 공원면적
16.4m2(2016)

생활폐기물 발생량
9,608톤/일(2016)

폐기물재활용량
39,119.8톤(2016)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2,871.7톤/일(2017)

미세먼지
22㎍/㎥(2018)

전력사용량
4,630만MWh(2016)

급수사용량
1,104,270천㎥(2017)

하수관거
10,701㎞(2017)

상수도관
13,571㎞(2018)

도시안전

77.7점

교통안전지수
77.7점(2017)

범죄발생건수
343,105건(2016)

119구조활동건수
163,055건(2017)

풍수피해액
44,613천원(2017)

화재발생건수
6,368건(2018)

교통

312 만 대

자동차등록대수
312만대(2019)

통행량
3,230만건/일(2016)

통행속도
24.2㎞/h(도심17.9㎞/h)(2017)

도로율
22.71%(2017)

지하철 노선 수
9개 노선(2017)

지하철 총연장
331.6km(2017)

지하철 이용객 하루
777만 명(2017)

버스운행대수
7,405(2017)

버스 노선 수
354(2017)

버스이용객 하루
428만 명(2016)

정보통신

94.8%

(행정)정보공개율
95.4%(2018)

스마트폰 이용자
서울시민의 96.9%(2017)

무료공공 WiFi 제공
2,694개 지역/8,679AP 설치(2017)

무료 스마트폰 충전소
390개소에 5,700대 설치(2016)

CCTV통합관제센터
25,070개(365일/24시간 운영)(2016)

초고속통신망(e-Seoul Net)
35개 기관, 183km(2016)

서울데이터센터 정보시스템
1,065개 통합관리(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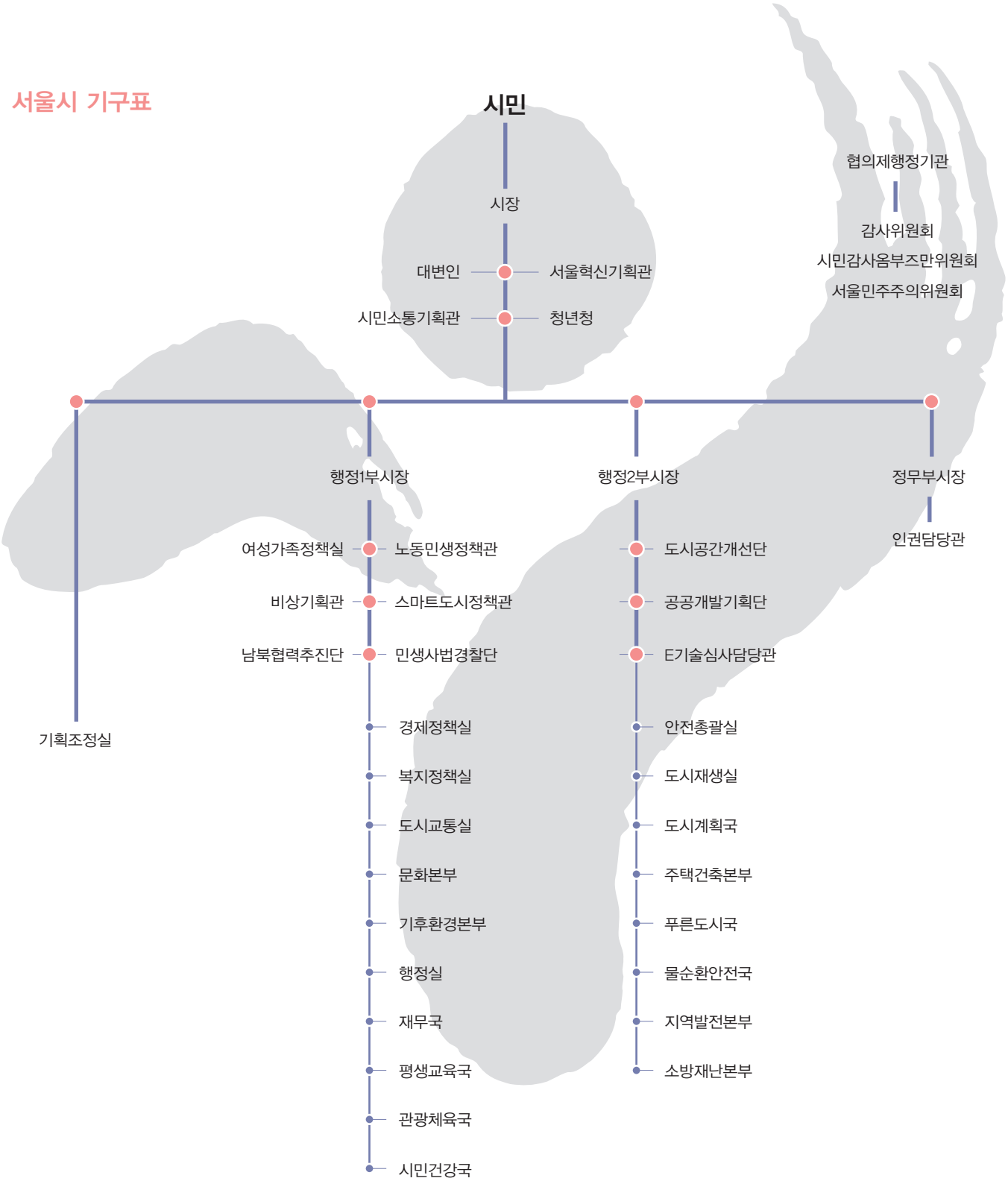
모바일앱 서비스
11개 분야 42개 제공(2017)

〈출처 : 서울시 통계데이터담당관〉

06.
행정조직현황

2019.8 현재 〈출처: 서울시 조직담당관〉

서울시 기구표


시민
시장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청년청
협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1부시장
여성가족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실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행정2부시장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E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
지역발전본부
소방재난본부
정무부시장
인권담당관

07.

한눈에 보는 서울시 예산 2019년도 (부문별)

31조 8,811억 원

순계(13.8% ↑)

35조 7,416억 원

총계(12.3% ↑)

행정운영경비

1조 8,317억 원 **5.7%**

일반행정

7,780억 원 **2.4%**

예비비

2,461억 원 **0.8%**

재무활동

9,344억 원 **2.9%**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1조 200억 원 **3.2%**

- **주거환경** 7,427억 원
- **도시정비** 2,773억 원

도로교통

2조 3,468억 원 **7.4%**

- **주 차 장** 1,119억 원
- **도시철도** 8,357억 원
- **대중교통** 9,689억 원
- **도로건설** 4,303억 원

사회복지

11조 1,574억 원 **35.0%**

- **주　　거** 1조 5,759억 원
- **보　　건** 4,618억 원
- **어 르 신** 2조 5,411억 원
- **저 소 득** 2조 5,717억 원
- **교　　육** 3,919억 원
- **장 애 인** 9,586억 원
- **여성보육** 2조 6,565억 원

도시안전

1조 5,068억 원 **4.7**%

- **소 방 안 전** 2,036억 원
- **시설물 관리** 6,864억 원
- **수방 및 치수** 6,168억 원

공원환경

2조 8,947억 원 **9.1**%

- **기후환경** 4,674억 원
- **상하수도** 1조 1,038억 원
- **공원녹지** 1조 3,235억 원

교육청 및 자치구

7조 7,150억 원 **24.2**%

- **교육청 지원** 3조 288억 원
- **자치구 지원** 4조 6,862억 원

산업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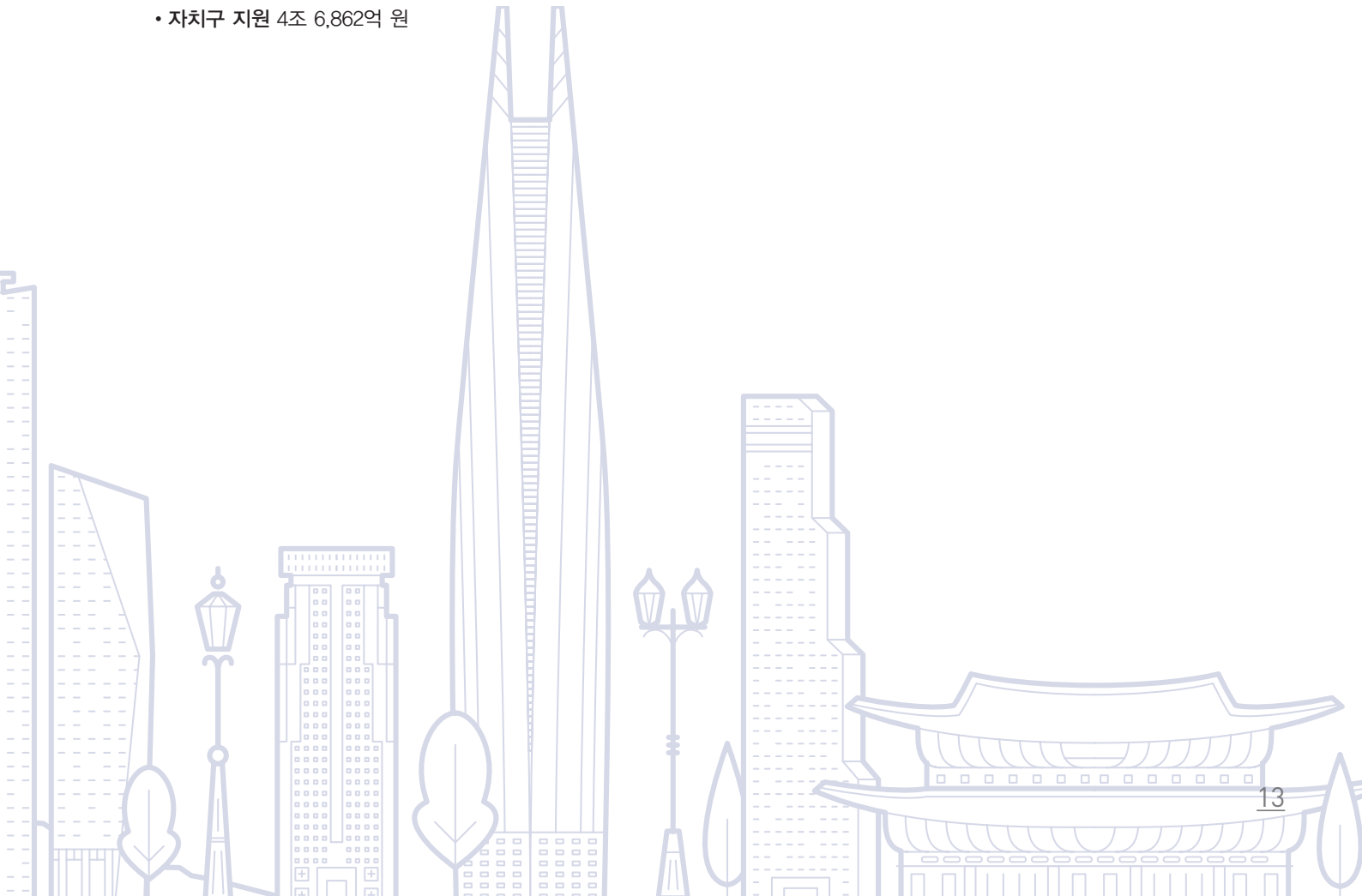
6,577억 원 **2.1**%

- **산 업 육 성** 3,386억 원
- **일 자 리** 2,261억 원
- **민 생 경 제** 566억 원
- **사회적경제** 344억 원

문화관광

7,944억 원 **2.5**%

- **관광진흥** 644억 원
- **역사문화** 2,340억 원
- **체육진흥** 2,028억 원
- **문화예술** 2,932억 원



08.
서울의 역사

서울의 도시역사는 백제의 수도 위례성이 서울 동남부의 한강변에 위치했던 약 2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후 오늘날의 도시발전은 서울이 1394년 조선왕조(1392~1910년)의 수도가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은 19세기 말 개항과 함께 전기, 철도, 전차, 공원, 상수도, 학교와 병원 시설을 도입하면서 근대도시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일제강점기(1910~1945년)로 이어졌고, 점차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불량 정착촌이 도시 곳곳에 형성되었고, 외곽 지역이 급속히 편입되어 새로운 주거지로 변모해 나갔습니다.1945년 해방 이후 서울특별시로 개칭되었으며, 한국전쟁(1950~1953)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 전쟁 폐허였던 서울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반세기 만에 세계적인 거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100년 만에 이룩했던 산업화가 한국에서는 30년도 걸리지 않아 이루어졌으며, 서울은 반세기만에 각종 도시문제를 극복하고 인구 1,000만 명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스마트시티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발전 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960~1970년대 대규모 인구 유입과 사회기반시설 부족으로 서울은 교통체증, 환경오염, 무허가 정착촌, 주택 부족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도로확충, 무허가 정착지에 시민아파트 건설, 청계고가도로 및 여의도 건설 등 기초인프라 구축에 집중하였습니다.

1980~90년대에는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을 유치함에 따라 적극적인 도시개선과 미화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한강의 종합개발계획과 한강변에 강변북로 및 올림픽대로의 건설, 지하철 2~8호선 개통, 중산층의 폭발적인 주택수요에 대응한 강남, 목동, 고덕, 개포, 상계 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 이루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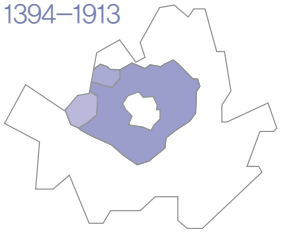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으로 서울은 대중교통, 도로, 상하수도 등 상당한 수준의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게 되었으나,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자연환경 파괴, 역사자원 훼손, 공동체 파괴 등의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2000년대, IT 기술 발달,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서울의 도시 관리 방식은 지속가능한 도시, 최첨단 IT 도시로 변화되었습니다. 청계천 복원, 서울숲 등 넓은 공원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고, 서울시 행정 전반의 전자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자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서울로 7017, 세운상가 재생사업 등이 추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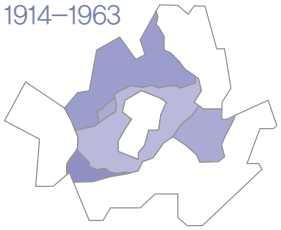
〈출처 : 서울연구원, 서울과 세계대도시(2017), 21p〉

Seoul's city expansion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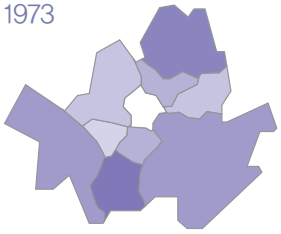
1394–1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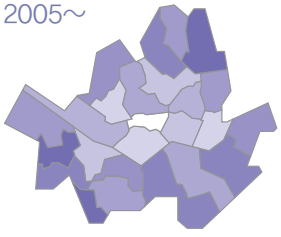
1914–1963



1973



2005~



〈출처 : 주택홍보책자 6p〉

서울의 도시발전 단계 및 주요 정책

제1기 도시기반 확충기(1960~1980)

특징

- 1960년대 : 종전 후 도심 위주 복구, 개발
- 1970년대 : 과도한 도심 집중 완화를 위해 중심기능과 인구를 외곽으로 분산

주요사업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정(1966)
- 청계천고가도로건설(1967)
- 구로동 수출산업단지 준공(1967)
- 한강 주요 다리 개통(양화, 한남, 잠실, 천호 : 1966–1974)
- 여의도 종합개발계획 수립(1969)
- 개발제한구역 지정(1971)
- 영동, 잠실지구 개발계획 발표(1973)
- 지하철1호선 개통(1974)
-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지정(1977

제2기 도시 성장기(1980~1990년대)

특징

- 1980년대 : 국제행사 대비 도시미관 개선사업, 낙후지역 재개발 사업 등 시행
- 1990년대 : 빠르게 노후화 되는 시가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주요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제정(1980)
- 한강살리기종합대책 마련(1981)
- 잠실종합운동장 건립(1982)
- 한강종합개발사업 추진(1982–1986)
- 지하철2,3,4호선 개통(1984–1985)
- 목동·상계 등 집합주거단지계획(1985)
- 쓰레기 분리수거제 실시(1992)
- 버스카드제실시(1996)
- 지하철5,6,7,8호선 개통(1990–1996)

제3기 지속 발전 가능한 스마트도시(2000~현재)

특징

- 역사 문화 및 지속가능발전 가치 중시
- 스마트서울(서울시정 전반 전자화)
-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 변화

주요사업

- 난지생태공원 조성(2002)
- 청계천 복원사업(2004)
- 대중교통시스템 개편(2004)
- 경유차 저공해사업(2005)
-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2005)
- 마곡스마트시티 조성(2007~2016
- 서울도심역사문화보존(2010)
- 에코마일리지(2010), 원전하나줄이기(2013)
- 스마트 서울 추진(4차 정보화계획, 2011~2015)
- 서울로7017(2017), 세운상가 재생사업(2015–2019)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2017)

〈출처 : 해외도시연구 및 전략적 교류방안 수립(2013) 59p 참조〉

서울의 도시계획과 주택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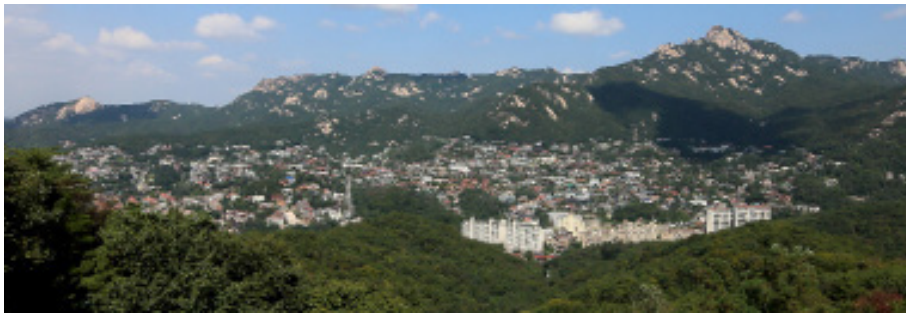
주택 보급률

96% (2017)

서울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압축적 도시발전을 이루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01 _ 압축도시,서울
02 _ 서울의 주택
03 _ 도시개발 사례
04 _ 서울의 도시계획

01.
서울 도시 공간 구조의 특징 '압축 도시



서울은 토지이용 측면에서도 매우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입니다.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 중의 하나로서, 인구 1인당 토지 소비면적이 적습니다. 만약 서울이 서구의 도시와 같은 밀도로 개발이 되었다면, 위에서 볼 수 있는 숲은 사라졌을 것이며, 대신 그 자리는 도시 용지로 개발되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확산적 토지이용은 교통 및 기반시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환경오염을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서울의 압축적 도시개발이 가져온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보이지 않는' 진정한 아름다움으로서의 녹색 서울입니다.

압축적 도시개발은 서울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2/3를 넘습니다. 이는 압축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 덕분에 효율적이고 편리하며 친환경적 대중교통시스템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세계적인 수준의 저탄소 도시 서울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지속가능한 현대도시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은 1966년에 발표된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서울은 급속한 성장을 예측하여 그 당시 만연하던 무질서한 난개발 대신 공간 질서를 수립하고,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할 도시공간을 확보하면서, 외곽에는 그린벨트를 지정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부도심에 대한 계획을 구상함으로써 교통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출처: 강명구 교수, 세계와 도시 8호 p14~15〉

Compact City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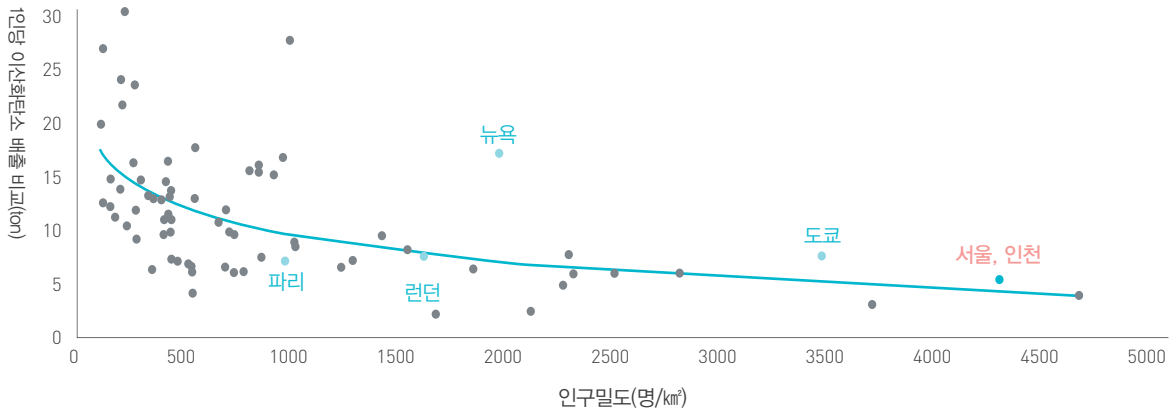
압축도시의 장점
- 인프라 투자 비용 ↓
- 토지이용 효율성 ↑
- 녹지 지역 ↑
- CO2 배출량 ↓

인프라비용 비교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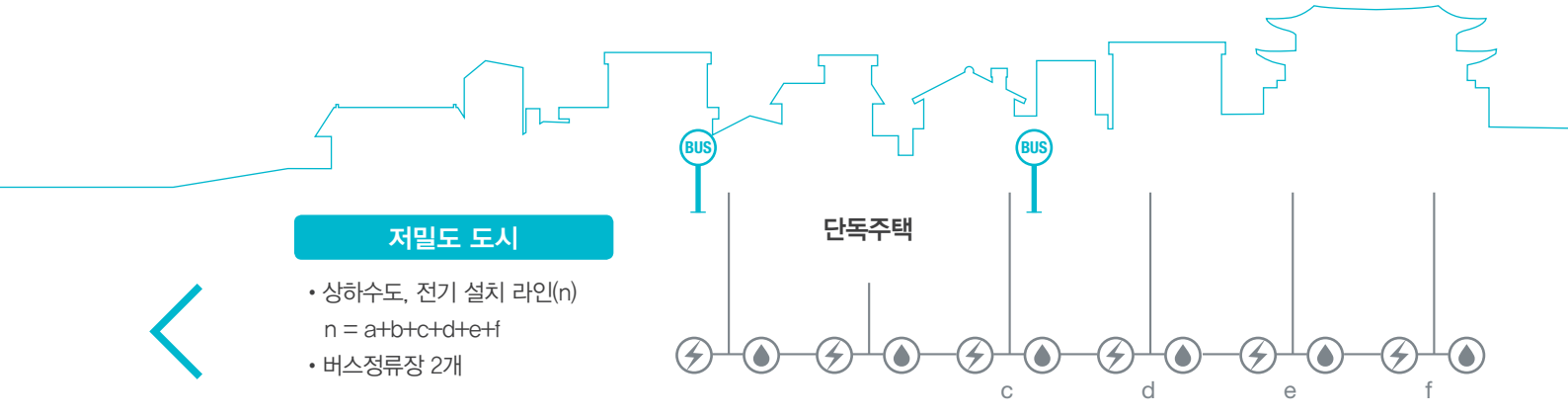
고밀도 도시
- 상하수도, 전기 설치 라인 (n)
  n = a+b
- 버스정류장 1개

고층아파트

세계 도시들의 인구밀도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 비교



〈출처:OECD(2012), Redefining "urban" A New Way to Measure Metropolitan Areas, OECD publishing, doi:10.1787/9789264174108-en〉



저밀도 도시

- 상하수도, 전기 설치 라인(n)
  n = a+b+c+d+e+f
- 버스정류장 2개

〈출처: 최막중 교수, 2015년 서울시 국제포럼 발표자료〉

02.
서울의 도시계획

서울은 그간 급속한 성장에 따른 문제의 해결과 다가오는 저성장 시대에 대비하여 100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을 도시계획 기본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30 서울플랜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은 1990년 최초 수립 이래 4번째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250여 명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직접 정한 서울시의 미래상과 발전방향 및 공간관리지침이 담겨있습니다.

미래상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

핵심 이슈별 계획
사람중심도시 | 글로벌상생도시 | 문화도시 |안심도시 | 공동체도시

공간계획
공간구조 | 세부과제 | 권역별 구상

※ 상세정보 : 도시계획홍보책자 참조Brochure

생활권계획

생활권계획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인 '생활권'을 범위로 수립한 시민 눈높이 계획으로서 2017년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3년여 간 주민참여단 4,479명으로부터 34,833개 의견을 수렴하여 총 5개 권역생활권계획과 116개 지역생활권계획을 마련했습니다.

〈Source: Seoul City– Urban Planning Division〉

서울도시계획헌장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헌장은 서울 도시계획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며,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원칙을 제시하게 됩니다.

01 자연환경 보존 도시

서울의 자연환경은 고유한 생태적, 경관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한다. 내사산과 외사산, 한강과 지천 등을 보호, 복원하여 서울의 환경적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 및 강화하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02 역사문화 보전 도시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축적된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온전히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 나아가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도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03 대중·녹색 교통 도시

시민 모두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로 및 교통체계를 만든다. 보행, 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차량에 앞서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우선시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04 생활안전 도시

자연지형에 순응하고 물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05 친환경 에너지절감 도시

신축 등의 개발 행위는 주어진 자연환경 여건을 존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특히 공공건물과 시설은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

06 조화로운 경관 도시

건축물. 시설물. 구조물은 서울의 자연환경 및 역사경관과 어우러지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도시. 주거환경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한다.

07 어디서나 편리한 도시

주거지와 일터가 가까운 도시 공간구조를 꾀하여 시민의 출퇴근 비용을 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다양한 상업. 문화시설을 역세권에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보행 중심 도시공간을 만든다.

08 장소성의 도시

서울 각 지역 고유의 특성과 공동체의 기억을 보호하여 장소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다채로운 삶의 가치와 시대적 경험이 담긴 장소 만들기를 통해 도시재생과 환경정비의 질을 높이고 특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09 참여와 소통의 도시

도시계획의 수립 과정에 모든 시민이 자발적. 민주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주민과 공공행정기관 사이에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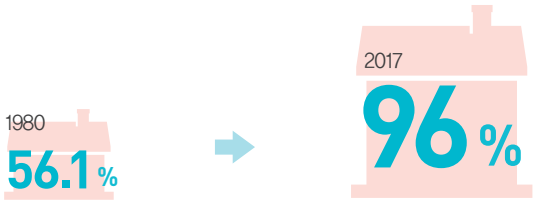
10 배려와 공존의 도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지향한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복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차이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다.

03.
서울의 주택

주택 보급률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주택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서울은 주택부족 사태를 겪었습니다. 정부는 만성적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공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2015년 현재 96%에 이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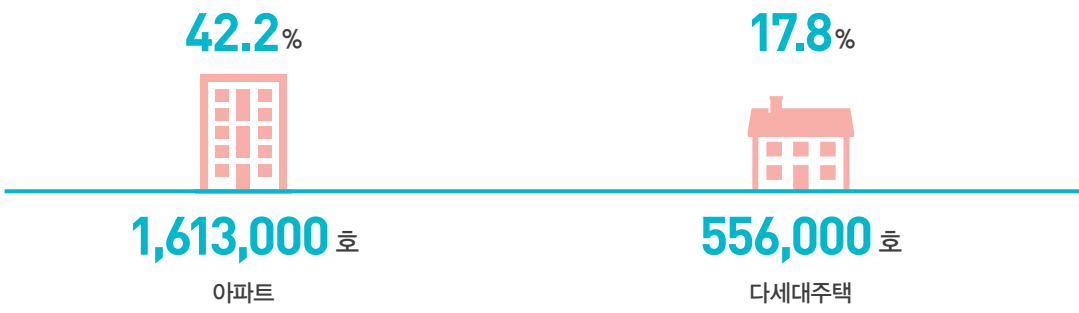


〈출처 :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택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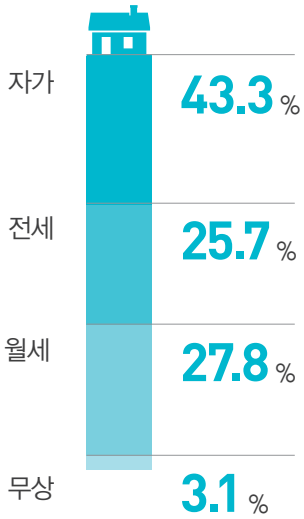
서울의 주택유형은 현저하게 바뀌었습니다. 1970년까지만 해도 서울의 주택 중 80% 이상이 단독주택이었고, 아파트는 4%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급으로 2018년 현재 단독주택은 28.7% 아파트가 42.2%로 급증하여 아파트가 서울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주택유형 동향



주택 점유 유형

서울시민의 주택 자가율(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2018년 현재 42%로, 58.4%가 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출처 : 주택홍보책자 7P〉

28.7 %

398,000 호

단독주택

2.8 %

142,000 호

연립주택

2 %

24,000 호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주거복지정책

공공임대주택

주택가격 및 임대료 폭등 등으로 저소득층 주거불안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령인구와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청년들은 높은 실업률과 주택비용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 시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소득계층별 맞춤형 임대주택

택지 개발을 통해 대단위로 새롭게 짓는 건설형 임대주택을 비롯하여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나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형, 기존주택을 집주인으로부터 서울시가 빌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임차형 임대주택까지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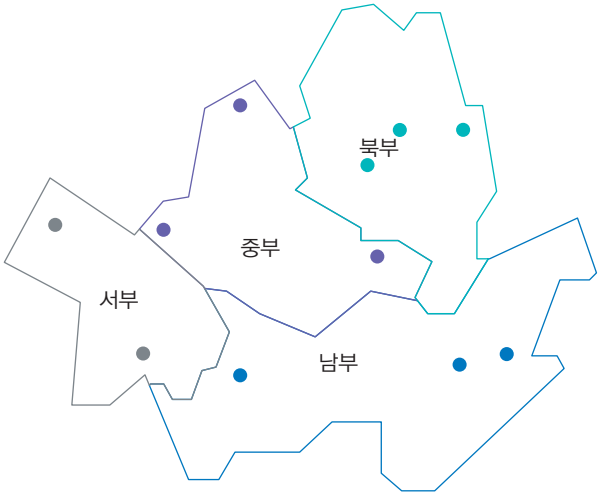
구 분	종류별	내 용	공급면적	임대의무기간
건설형	영구임대	소득1분위 이하 생계·의료수급자용	전용 25~49㎡ 이하	50년
	공공임대	이주대책자, 청약저축가입자	전용 25㎡~49㎡ 이하	50년(특별), 20년(일반)
	국민임대	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서민계층용	전용 59㎡ 이하	30년
	장기전세	중산층용 최대 20년 거주 전세형 임대주택	전용 114㎡ 이하	20년
	행복주택	젊은층 주거안정 위한 신개념 임대주택	전용 19㎡~45㎡ 이하	6년(젊은층)~20년(고령자 등)
매입형	재개발임대	민간 재개발 주택 매입임대	전용 59㎡	50년
	다가구, 원룸매입임대	민간 다가구·원룸주택 매입 후 재임대	전용 84㎡ 이하	20년
	장기전세	중산층용 최대 20년 거주 전세형 임대주택	전용 129㎡ 이하	20년
	행복주택	젊은층 주거안정 위한 신개념 임대주택	전용 60㎡ 이하	6년(젊은층)~20년(고령자 등)
	역세권 청년주택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	공공임대 : 45㎡ 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 : 60㎡ 이하	4년(공공지원민간임대) ~10년(공공임대)
임차형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형 임대(시비 지원)	전용 60㎡ 이하 (2인이상: 85㎡ 이하)	최대 1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전세금 지원형 임대(국비 지원)	E전용 85㎡ 이하	최대 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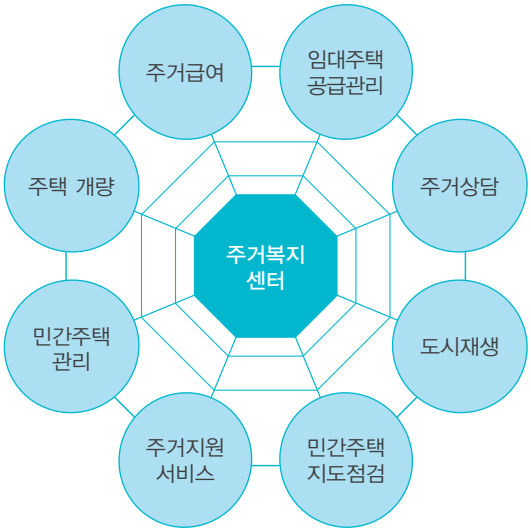
〈출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홍보처〉

주거복지체계

서울시는 4권역 9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여, 고객 가까이에서 임대주택을 관리함은 물론 지역별 주거복지체계를 구축해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더 나은 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별 주거복지센터





시민 생애주기별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주택 건설/공급

틈새 계층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기존 공공임대주택으로 충족되지 않았던 다양한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출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홍보처〉

청년/기업가/창업인 주택(753호)

성북구 도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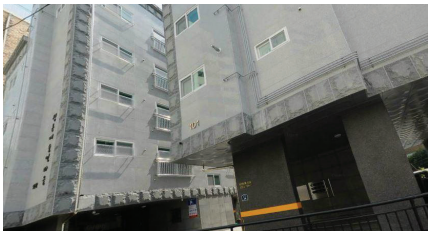
여성.다문화가정.육아.신혼부부 주택(475호)

동작구 모자안심주택

어르신/유공자 임대주택(37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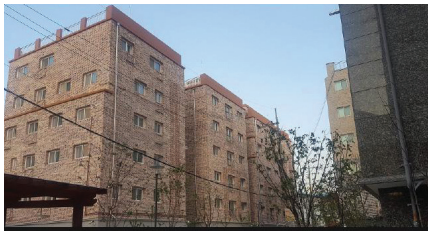
금천구 홀몸어르신주택

예술인 임대주택(167호)



성북구 예술인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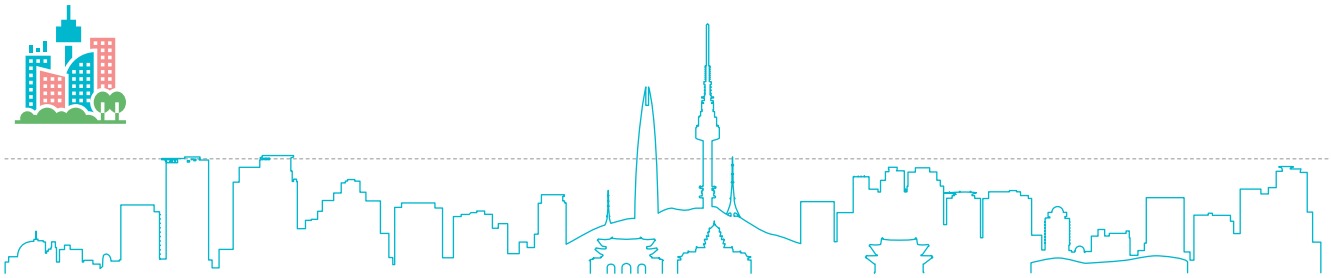
기타(마을주민, 지역경제종사자 등)(239호)



성동구 마장행복마을

04.
도시개발 사례

서울시는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삶터를 만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낙후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개발, 재생과 개발을 고려한 도시 개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일터와 삶터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의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계천 복원 사업

서울시 도심 내부를 흐르는 청계천은 1925년부터 1977년까지 구간별 복개공사가 진행되면서 사실상 하천의 기능을 상실하고 지상에 설치한 복개 구조물과 노후한 고가도로의 안전문제가 서울시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고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청계천 복원공사를 실시하여, 청계천을 뒤덮었던 청계고가를 철거하고 자연, 역사, 문화자원을 복원하여 활기 넘치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2007년 아시아 토목공과 대회 수상 외 다수).

서울로 7017

서울역 고가도로는 1970년 5월 준공된 이후, 근대화의 상징물이자, 서울역에서 대면하게 되는 서울의 첫 얼굴이었으나 2006년 실시한 정밀 안전 진단 결과, D급 상태로 판정되어 철거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 서울역 고가를 재활용하여 서울역 주변지역의 재생과 부흥의 촉매로 활용하고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로 7017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제 서울역 고가는 사람들이 쉬고, 거닐며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활력 있고 매력적인 보행도로로 재탄생되었습니다.

마곡 스마트시티

안전한 도시

학교 및 공원과 주거지역 통행로를 중심으로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 경찰관에게 통보되어 출동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신속한 재난감지 및 상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지성 호우로 인한 우·오수관 수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주요 도로 중심으로 영상 감시를 실시합니다.

정보화 도시

마곡 스마트시티 전역에 통신관로 및 광케이블을 매설, 유무선으로 현장 시설물과 통합관제센터를 연결하여 광대역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CCTV, 수위측정계, 시설물 센서 등 다양한 현장시설물 센서와 통신이 가능합니다. 공원, 지하철역, 버스·택시 승강장 반경 50~100m 내에서 접속 가능한 와이파이존을 구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합니다.

편리한 도시

원활한 교통흐름과 편리한 교통정보를 실시간 제공합니다. 지구 내 우회도로, 병목지점, 사고지점과 교차로, 혼잡 예상지역의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가공하여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아울러 주요 상업지역, 교통정체 구간, 골목지점 등에 불법 주·정차 단속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일원

면적 : 3,665,722㎡Area: 3,665,722㎡

난지생태공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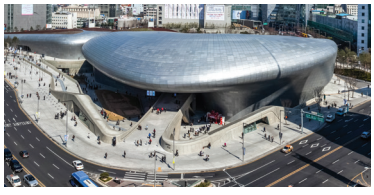
급성장과 도시화의 부작용으로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아왔던 서울시는 1978년, 한강 하류에 조성된 범람원인 '난지도'를 쓰레기 매립지로 지정하여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매립해왔습니다. 그로부터 약 10여 년이 흐른1980년대에 이르러 난지도는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악취와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죽음의 땅으로 변모해갔습니다. 또한 주변 한강의 수질과 대기가 오염되고 가까운 지역의 생태계 마저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1991년부터 난지도를 되살리고 친환경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였습니다.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약 10여 년에 걸친 계획, 설계, 공사 끝에 난지도는 친환경주거단지, 생태공원, 월드컵경기장으로 되살아났습니다. 특히,난지생태공원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 그리고 캠핑장과 파크골프장 운영 등으로 연간 약 1,000만 명의 시민이 즐겨 찾는 서울의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2010년, UN-HABITAT 특별상 수상).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와 그 주변일대를 친환경 미래형 신도심으로 재개발해 탄생한 DMC는 디지털미디어시티(Digital Media City)의 약자로서 서울 서북권의 관문 상암 지구에 569,925㎡(약17만 2천평)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2001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02년부터 인프라 조성공사가 시작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클러스터로 환경과 기술, 문화와 산업, 투자와 혁신이 융합된 첨단 콘텐츠 개발, 생산, 유통단지입니다. 550여개 기업이 입주한 DMC는 최상의 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기업 간의 활발한 네트워킹 및 활동을 지원하고 첨단 정보 미디어의 수요자들에게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북아 주요 정보 기술 및 R&D거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동대문운동장의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상실과 노점상의 무질서한 범람으로 패션상권으로서 동대문 이미지가 훼손되고 도심 슬럼화의 조짐이 보이자 동대문 지역의 도심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재생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2007년 동대문운동장이 철거되고 2009년 착공하여 2014년 3월 개관한 DDP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각종 전시, 패션쇼, 신제품발표회, 포럼, 컨퍼런스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가 교류하고 트렌드가 시작되는 장소로서 세계 최초 신제품과 패션 트렌드를 알리고, 새로운 전시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며, 다양한 디자인 체험이 가능한 콘텐츠로 운영되어 디자인, 패션사업의 발신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교통과 환경

대중교통분담률

65%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서울은 선진적인
대중교통시스템과 환경정책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중심도시,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어갑니다.

01 _ 서울의 교통정책
02 _ 서울의 에너지 정책
03 _ 서울의 에너지 정책
04 _ 서울의 상하수도 정책

01.
서울의 교통정책

1980년대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서 승용차 소유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983년 대비 2017년 자동차 수는 10배 이상 늘어난 반면 도로는 1.2배 증가에 그쳐 시내가 혼잡해졌습니다. 따라서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은 승용차 없이도 시민들이 어디든지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선진적인 대중교통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많은 해외도 시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시 교통정책과〉

서울시 교통 현황

통행속도
24.2km/h (2017)

통행량
3,210만 건/일 (2017)

도로연장
8,243km (2017)
1983년 대비 1.2배 증가

자동차 등록대수
311만대 (2017)
1983년 대비 11배 증가

도로율
22.71% (2017)

수단별 수송 분담률(2017)

지하철
39.9%

버스
25.1%

대중교통이용률

65% (2017)

대중교통이용 만족도

80.9% (2015)

지하철 총연장

338.4km (2017)

버스운행대수

7,405대 (2017)

버스이용객

407만 명/일 (2018)

지하철 노선 수

10개 노선 (2018)

지하철 이용객

511만 명/일 (2018)

버스노선수

354개 (2017)

승용차

24.4%

택시

6.5%

기타

4.1%

승용차보다 빠르고 편리한 버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버스 준공영제'

서울시는 2004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노선, 운행방식 조정, 운행평가, 재정지원 등은 서울시가 담당하고 노선 운행, 차량 관리, 운수종사자 관리는 민간회사가 담당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우선, '중앙버스전용차로(BRT)'

도심내 버스만 통행할 수 있는 전용차선을 설치하여 버스 운행의 정시성과 운행속도가 크게 향상되고 시민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정시성 87.3% (2006) to **91.2**% (2015)
만족도 59.2% (2006) to **80.79**% (2016)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로 내가 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여유좌석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스마트폰으로도 도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교통카드(T-money)

서울시는 카드 한 장으로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도입하였습니다. 서울시의 스마트교통카드는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탈 경우에도 요금 할인 혜택이 적용되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사용률 (2017)

지하철 **100**%
버 스 **98.8**%
택 시 **70.7**%

올빼미버스(심야버스)

심야 · 새벽시간대(23:30~06:00) 전용버스로 심야 휴대전화 통화량, 콜택시 이용량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출한 9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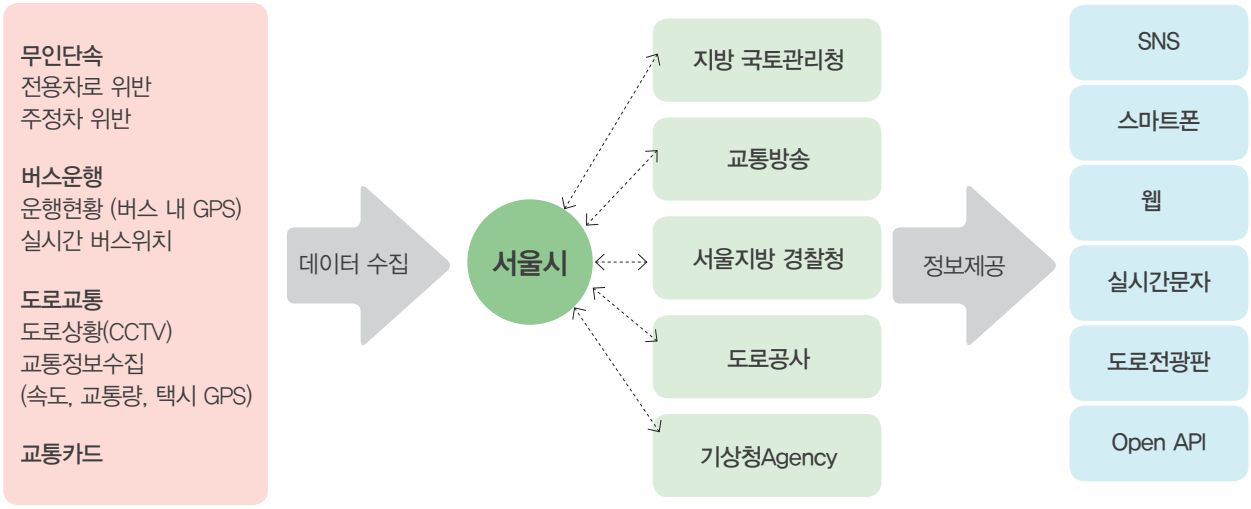
다람쥐버스(출퇴근 맞춤버스)

출퇴근시간대 차내 혼잡이 극심한 구간만 반복 운행하는 대표적 수요대응형 버스 서비스입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2017년 3월 서울 한양도성 내부 16.7㎢를 전국 최초의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도심 도로공간 재편을 통해 자동차 수요는 억제하고 대중교통과 보행자, 자전거가 더욱 편리한 도심을 만들어갑니다.

서울시 지능형 교통체계(ITS) : TOPIS



통합 교통상황 관리 및 교통 흐름 모니터링

- 24시간 교통상황 모니터링과 함께 혼잡시 교통신호 제어, 돌발 상황 발생 시 우회도로 안내
- 교통 흐름을 TOPIS 홈페이지, 도로전광표지, 교통방송, 모바일 앱, ARS, 내비게이션, SNS 등을 통해 교통 이용자에게 실시간 제공

도로교통관리

실시간 교통량 / 속도 / 돌발정보의 수집 및 가공, 각종 현장장비의 제어 및 도로교통 흐름 개선

체계적 버스운행 관리 및 대중교통 통합서비

- 9,000여 대의 서울시 버스 실시간 관리
- 이용자에게 버스 도착 정보 및 교통 흐름 정보 제공
- 무정차 통차, 노선이탈 등 과학적인 버스운행관리 및 버스업체 평가

무인단속 시스템

-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및 불법 주 · 정차 단속
- 단속부터 과태료 납부까지 자동 부과시스템 운영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모든 교통관련 자료(교통카드, 실시간 운행자료, 도로별 속도, 돌발정보 등)의 분석 등을 통해 과학적인 교통정책 수립 지원

교통예측 서비스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의 한계를 넘어 미리 혼잡을 피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교통예보서비스 시행

〈출처 : 서울시 교통정책과〉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전한 지하철

시민이 지하철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사건·사고, 불편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지하철 안전문

모든 역에 지하철 안전문을 설치해 선로 추락·소음 등을 차단하고 쾌적한 지하철 환경을 제공합니다.

승강장 공기질

35.3% ↑

소음

7.9% ↓

지하철 질서를 바로잡는 지하철보안관

열차 내 물건 판매, 구걸이나 소란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지하철보안관

149 명 (2014) → **323** 명 (2017)

불편·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모든 역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비상통화장치 9천여 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지하철 CCTV 설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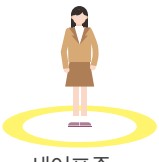
13,732 대 (2017)

역사 내 **11,856** 대

열차 내 **1,876** 대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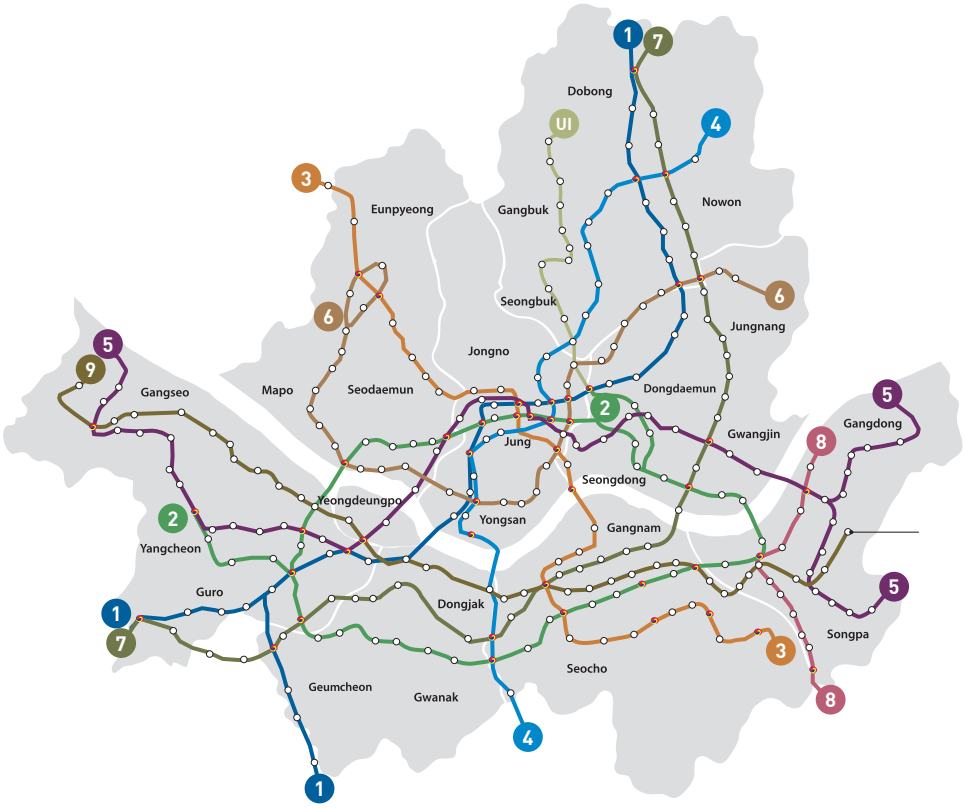
승강장 시민 안심 공간 세이프존

심야에도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흥가 주변 역사 내에 세이프존을 지정해 조명 밝기도 높이고, CCTV로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세이프존

40개역 총 **79**곳 (2017)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

1 ~ 4 : 노선길이 137.9km 역수 120개

5 ~ 8 : 노선길이 162.2km 역수 157개

9 : 노선길이 27km 역수 25개

02.
서울의 에너지 정책

〈출처 : 서울시 환경정책과〉

서울은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하나 줄이기는 시민들의 참여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원전1기가 생산하는 에너지양인 200만 TOE를 대체하고자 하는 서울의 지역 에너지 정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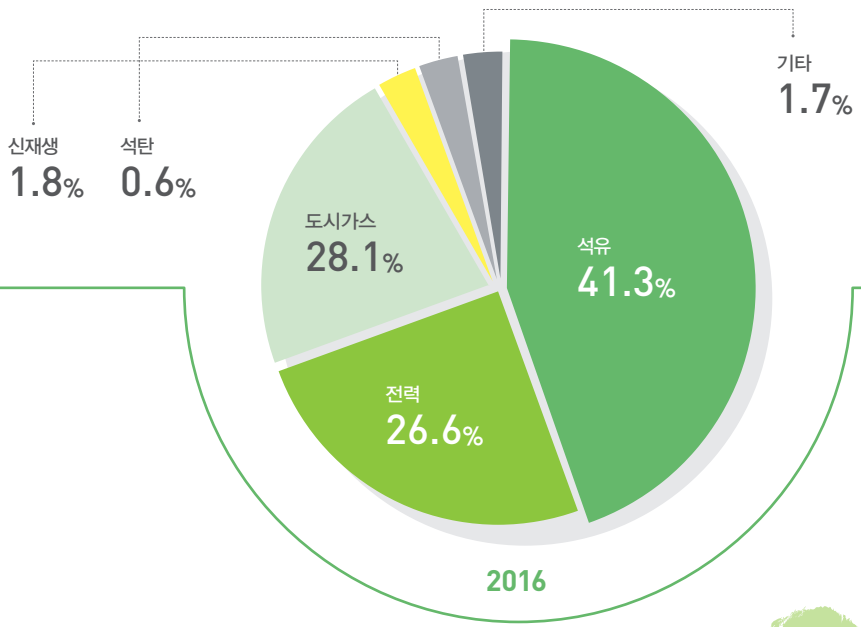
서울은 2012년~2014년 원전하나 줄이기 1단계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0만 TOE의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절감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부터는 2단계사업인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생산도시, 전력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 다른 지역과 상생하는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 2014. 7~2020〉은 원전하나 줄이기 1단계 사업과 마찬가지로 시작 단계부터 사업의 주요 방향과 추진방법까지 시민들과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소셜 픽션, 정책토론회, 온라인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에서 추구해야할 가치와 정책목표, 세부과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외 우수정책과 에너지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서울국제에너지자문단의 자문과 국제에너지컨퍼런스 개최 등 폭 넓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2단계 계획을 위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등 24회의 기획회의 및 시민대토론회 2회, 포럼 1회 등을 통해 전력자립률 20%달성, 에너지생산 · 절감 400만 TOE, 온실가스 1천만 톤CO2eq 감축목표가 정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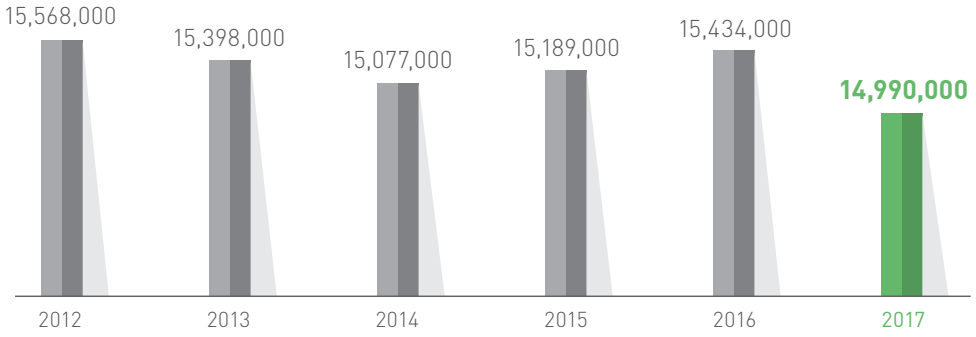
〈출처 : 원전하나줄이기 시민백서 2012–2016〉

에너지원별 소비 현황



에너지사용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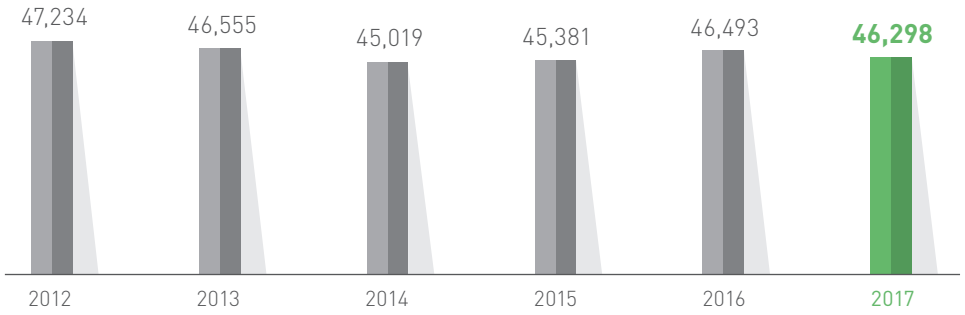
단위 : TOE



※ TOE(Ton of Oil Equivalent) : 에너지원의 발열량을 석유 발열량으로 환산한 것으로 각종 에너지 단위를 비교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단위

전력소비량

단위 : GWh



신·재생 에너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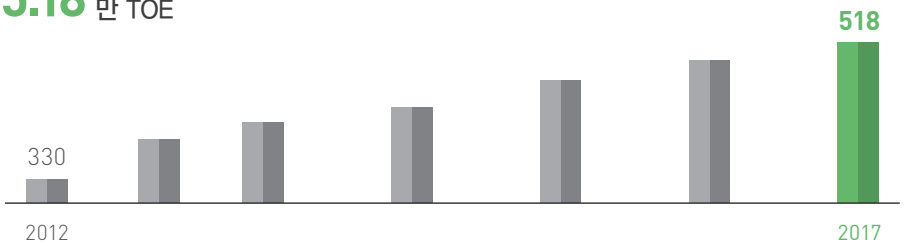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신재생에너지	256	233	238	293	335	316	351
최종에너지	15,496	15,568	15,398	15,077	15,189	15,434	14,990
이용률	1.7	1.5	1.5	1.9	2.2	2.04	2.34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추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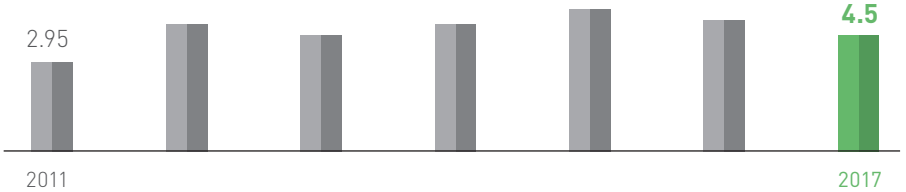
에너지생산·절약
단위 : 만TOE

5.18 만 TOE



전력자립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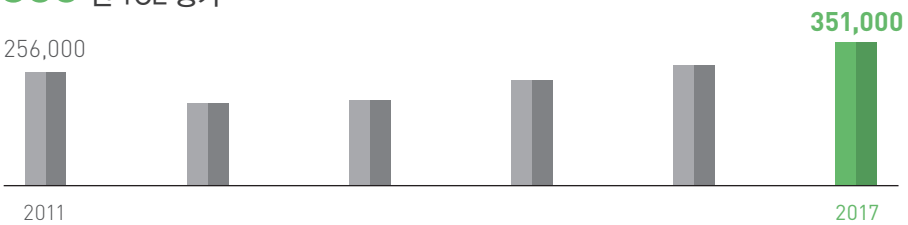
5.5 % 증가



※ 서울복합화력 재건설 공사로 일시감소, 준공시('19.10월말) 12%예상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단위 : TOE

355 천 TOE 증가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업그레이드 사업의 2020년 목표

에너지 자립 | 에너지 나눔 | 에너지 참여

3대 가치 실현을 통한 에너지 선순환 사회 만들기
에너지 자립도시, 서울

총에너지 생산·절감
450만 TOE

2020년까지
20% 달성

온실가스 감축
1,100만톤 CO_2 /uiv.e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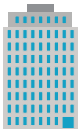
원전하나줄이기 주요정책(2018.12 기준)

태양광발전
91,098 개소

민간시설 태양광보급 89,507개소
공공시설 태양광설치 1,597개소

연료전지·열병합·소수력 등
582 개소

연료전지 532개소(가정용 423, 건물용 102, 발전용 7)
열병합발전시설 45개소 **열병합시설** 45개소
소수력 5개소



기존 건물 및 주택 BRP
595,706 개소

기존 건물 595,706세대
(공공건물 78, 민간 253,198, 공공임대 337,242, 저소득층 주택 5,188)
홈 에너지클리닉 96,466세대(소규모건물진단 1,378개소 포함)
친환경보일러 교체 254,263세대

녹색건축물 설계
8,629 건

8,629개소

교통부문
256,843 명

승용차 드라이빙 마일리지 79,590명
친환경자동차(전기, 하이브리드) 구입 11,680명
노후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공해화 157,573명
나눔카 일일 이용자수(18년) 8,000명

시민참여 현황 : 원전하나 줄이기는 시민과 함께 합니다

에코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 가입
204만 5천명(2018. 12)

에너지 아끼는 착한가게
8,420개소

에너지교육 및 투어프로그램 참여
185,053명

그린리더 양성
81,067명

에너지설계사 양성
577명(복지사 87명 포함)

서울에너지복지기금 조성 및 복지사업
34만3천명

에너지수호천사단
에너지수호천사단
141,18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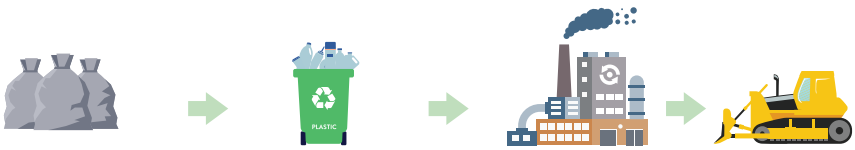
에너지절약실천 공모사업 참여
334개 단체

03.
서울의 폐기물 정책

1970~1980년대 서울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1990년대 분리수거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폐기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2015년 현재 생활폐기물 68%를 재활용하고 있으며 24%는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인근 주택의 난방열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 재활용, 재생 정책을 통해 자원이 순환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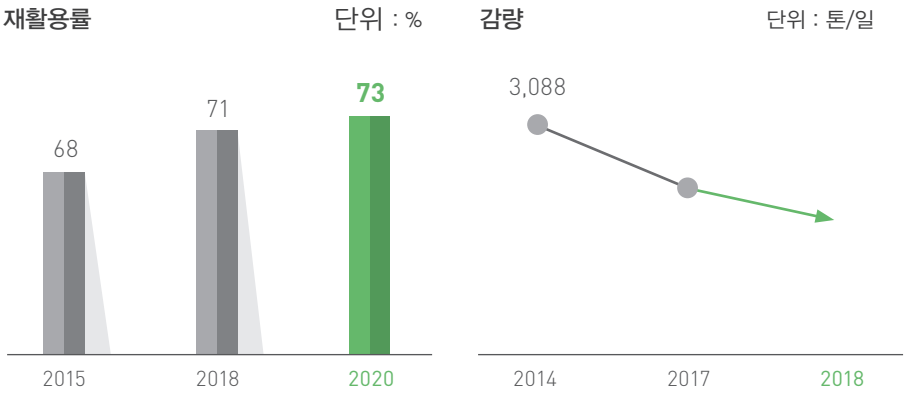
〈출처 : 서울시 자원순환과〉

서울시 폐기물 관리의 기본 방향



서울시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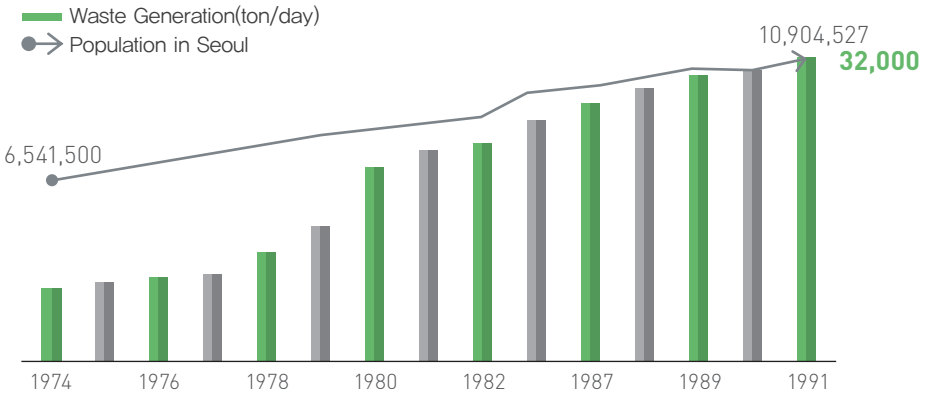
서울시 생활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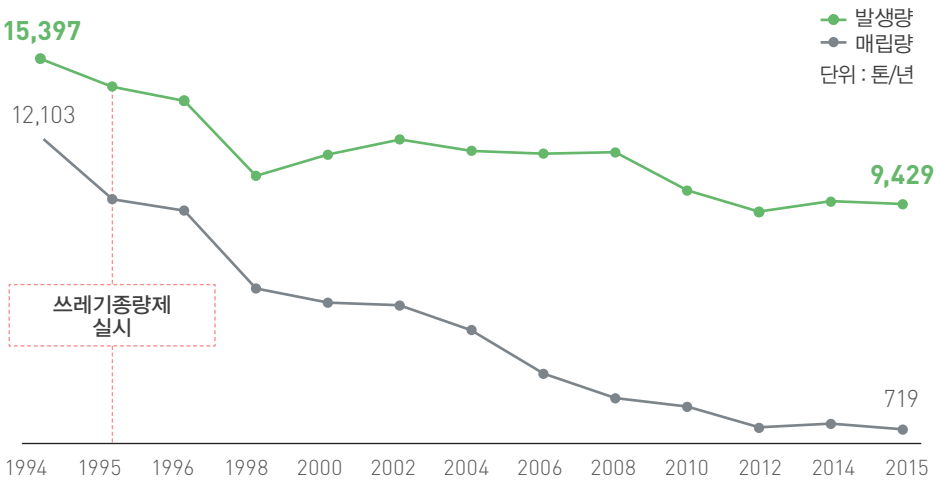
쓰레기 배출량을 대폭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쓰레기종량제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출하는 제도로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람이 환경오염 제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는 'Polluters Pay Principle'을 반영한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대폭 줄이고, 재활용 처리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서울시 인구 변화와 폐기물 발생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이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및 수거

서울 시민들은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종이팩, 플라스틱류, 병류, 금속류, 비닐류 등을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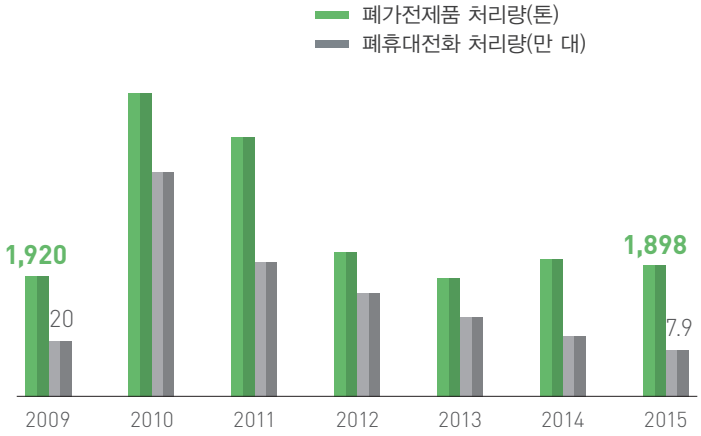
주민 스스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모으는 재활용 정거장

서울시는 주택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이동식 분리배출 장소로 직접 가져오는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2,092개 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폐가전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도시광산

서울시는 폐가전에 들어 있는 희귀 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도시광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를 2009년 설립해 배출되는 가전제품을 효과적으로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운영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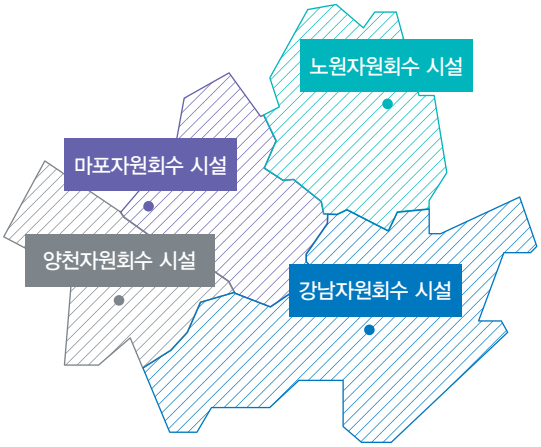
도시광산의 효율성

폐기물에서 에너지로, 자원회수시설

서울시는 생활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와 매립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는 쓰레기 소각 시 발생하는 고온의 폐열을 이용하여 난방에너지를 공급하고 전기도 생산합니다.

자원회수 시설 분포 현황

- 강남자원회수 시설 처리 지역
- 노원자원회수 시설 처리 지역
- 마포자원회수 시설 처리 지역
- 양천자원회수 시설 처리 지역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

2016

구 분	양천자원회수시설	마포자원회수시설	노원자원회수시설	강남자원회수시설
시설규모	400톤/일	750톤/일	800톤/일	900톤/일
공사기간	'92.12~'96.2	'01.11~'05.05	'92.12~'97.01	'94.12~'01.12
사업비	318억원	1,665억원	742억원	1,011억원
부지면적(건축면적)	14,627㎡(13,166㎡)	58,435㎡(30,558㎡)	46,307㎡(20,035㎡)	63,818㎡(27,195㎡)
폐기물반입량	103,798 톤	203,635 톤	186,082 톤	244,746 톤
폐기물소각량	104,343 톤	203,066 톤	182,959 톤	243,270 톤
전기생산량	12,951,034kW	32,579,072kW	–	–
전기판매량	5,946,444kW	14,436,402kW	–	–

04.
서울의 상하수도 정책

50년 전만 해도 서울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심각한 물 부족, 하천 오염 문제 등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정수장, 물재생센터,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해 온 결과 1991년 상수도 보급률 100%, 1998년 이후 하수도 보급률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서울시는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해 상하수도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인구 천만이 마실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하루 500만 톤에 이르는 하수와 분뇨, 폐수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여 생태계를 복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시 물순환국/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시 상수도 현황
2016

급수인구	1,005만 명
상수도	보급률 100%
생산시설용량	480만m3/일 (고도정수 357만m3/일)
일평균 생산량	320만m3/일 (최대 356만m3/일)
1인 일평균 급수량	309L(최대 346L)
정수장	6개소(100만 톤 이상 2개소)
취수장	5개소
유수율	95.1%(무수율 4.9%)
배수지	100개소(용량 242만m3/일)

서울시 하수도 현황
2015

처리구역 4개

배수구역 16개

배수분구 239개

하수처리시설
보급률 100%

- 하수관로 연장 : 10,616km
- 물재생센터 4개소(서남, 난지, 중랑, 탄천)
  – 처리용량 498만m3/일

홍수방지시설

하수관로 +

하천(국가, 지방) 40개소 I 유수지 52개소
빗물펌프장 114개소 I 빗물저류조 23개소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수질 관리

서울시 상수도는 상수원에서부터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수질 관리와 위기관리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세계 최고의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수준 이상인 171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잔류염소, 탁도, 수소이온농도, 철, 구리 등 주요 5개 항목에 대해 직접 수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수질 기준 검사 항목

최고의 수돗물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첨단 시스템

서울시는 맛있고 건강한 물 생산과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전 과정에 최첨단 정수기술과 IT기술을 활용한 운영 시스템을 적용,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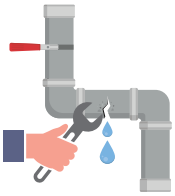
수돗물 생산·공급·관리 주요 시스템

정수	고도정수처리시스템	기존 표준정수처리 공정에 오존과 흡착력이 탁월한 입성활성탄 공정을 추가하여 불쾌한 맛과 냄새, 환경오염 물질 제거. 서울시내 6개 정수센터에 고도정수처리시설 100% 도입
	염소분산주입시스템	기존 표준정수처리 공정에 오존과 흡착력이 탁월한 입성활성탄 공정을 추가하여 불쾌한 맛과 냄새, 환경오염 물질 제거. 서울시내 6개 정수센터에 고도정수처리시설 100% 도입
	막여과 정수처리시설	막(Membrane)을 여재로 사용하여 원수의 불순물 분리 제거하는 정수방법. 서울시는 막여과 관련 8건의 특허를 취득
급수	배수지 확충을 통한 무단수시스템	배수지 확충을 통한 간접급수로 가압에 의한 수도관 파열 예방, 사고에 대비 최대 16시간 무단수 공급 가능
	이중관로시스템	정수장과 정수장을 연결하는 2중화 관로 설치로 위기상황에 대응
관리	아리수통합정보시스템	상수도 주요시설을 CCTV로 감시하며, 상황 발생 시 사업소 간 '실시간 통합 대응관리시스템'
	서울 워터나우시스템	원수부터 정수까지 전 구간에 걸쳐 실시간 수질 검사 · 관리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위치와 정보를 수집 · 분석하여 사고 예방
	모바일 아리수	모바일을 통한 단수, 동파 예고 등 상수도 관련 정보와 실시간 민원 접수

세계 최고 수준의 유수율로 입증된 체계적인 상수도 관리

서울시는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누수 • 녹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복잡한 상수도망을 블록화하고 유량계와 유량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유수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상수도 운영으로 서울시의 상수도 요금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 저렴한 수준을 자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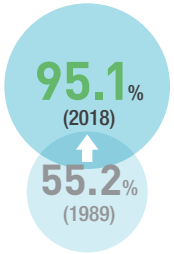
유수율 향상에 따른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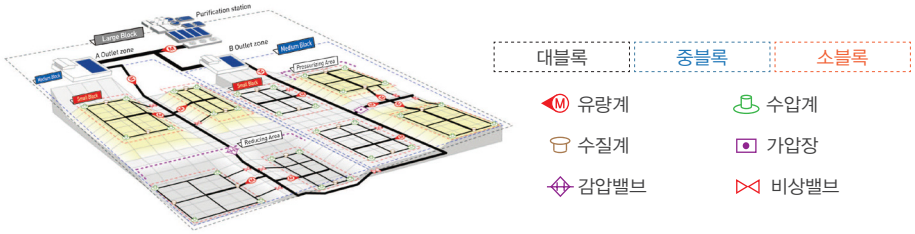
누수량 감소 115억 톤

예산 절감 3조 480억원

정수장 시설 감축 10개소 → 6개소



유수율 향상을 위한 관리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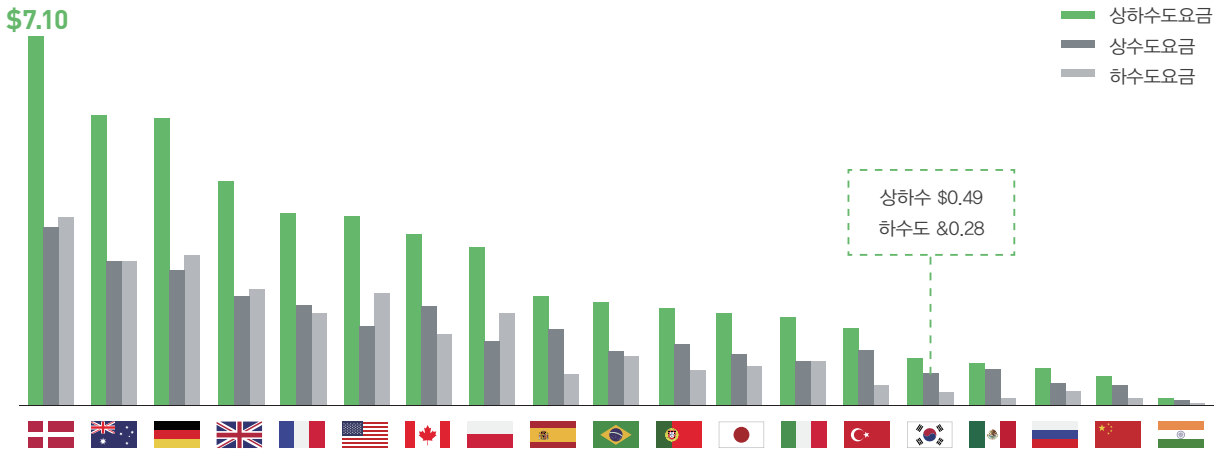
상수도 블록 관리 – 각 상수도망을 100개의 대·중·소 블록으로 나누어 누수 탐사 및 사용량 분석이 용이하도록 관리

상수도관 정비 – 사용연한 경과로 누수가 발생하는 관을 내구성이 강하고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강관, 덕타일 주철관 등으로 교체(2018년까지 98.7% 완료)

과학적인 공급량 관리 – 송수관, 급수 구역, 블록, 가압장, 배수지 등에 유량계 및 유량감시 시스템을 설치하여 유출입 공급량을 정확하게 관리

세계국가별 상하수도 요금 비교

2014–2015, 조사기관: GWI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처리하고 재생시키는 '물재생센터'

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정화하기 위해 4개의 물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물재생센터는 공원, 체육시설 등의 복합문화공간이자, 다양한 환경친화공법을 도입한 주민친화시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eco-friendly methods.

4개의 물재생센터

하수 시설용량 총 498만㎥/일

중랑
- 건설연도 : '70~'07
- 처리구역 : 10개구 1개 인접지자체
  동대문, 중랑, 성북, 노원, 강북, 도봉, 광진 전역 / 종로, 중구, 성동구, 의정부시 일부
- 시설용량 : 159(만㎥/일)

난지
- 건설연도 : '84~'97
- 처리구역 : 7개구 1개 인접지자체
  마포, 용산, 은평, 서대문 전역 / 종로, 중구, 성동, 고양시 일부
- 시설용량 : 86(만㎥/일)

탄천(민간위탁)
- 건설연도 : '83~'98
- 처리구역 : 4개구 2개 인접지자체
  강동, 송파 전역 / 강남, 서초및 하남시, 과천시 일부
- 시설용량: 90(만㎥/일)

서남(민간위탁)
- 건설연도 : '84~'99
- 처리구역 : 9개구, 1개 인접지자체
  영등포, 관악, 동작, 구로, 양천, 금천, 강서 전역 / 강남, 서초및 광명시 일부
- 시설용량 : 163(만㎥/일)

자원의 보고 하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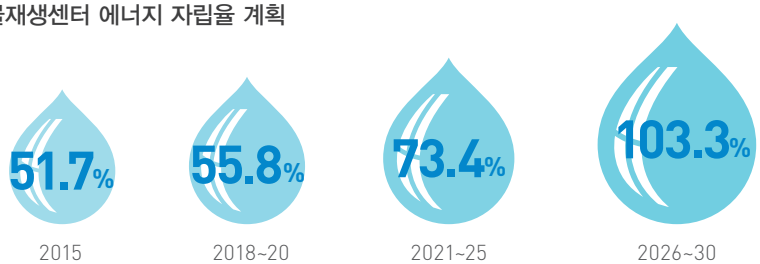
2015년, 물재생센터는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

에너지 생산량
65,774 TOE

에너지 총 사용량
127,314 TOE

TOE(Ton of Oil Equivalent) : 원유의 1톤 발열량 (1,000만kcal) 기준 에너지원 표준화 (1TOE = 석탄 1.55톤, 천연가스 1,150m3)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립율 계획



서울의 안전과 행정 서비스

(행정)정보공개율

94.8%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효율적인 시민참여 행정을 구현하는 도시!
서울은 시민 안전과 스마트한 행정서비스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01 _ 서울의 도시안전
02 _ 서울의 전자정부 서비스

01.
서울의 도시안전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민의 삶의 질도, 도시의 경쟁력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시를 디자인하고, 선진화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서울은 세계 최대 도시 · 국가 비교 통계 사이트인 Numbeo(www.numbeo.com)가 실시한 2016년 세계범죄 및 안전도시 조사에서 세계에서 3번째로 안전한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출처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도시디자인으로 범죄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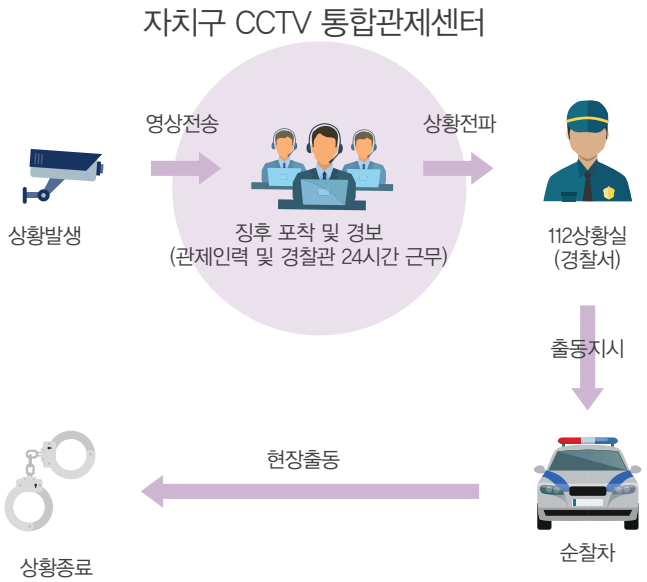
범죄예방디자인(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란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 기회를 사전에 예방하는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서울시는 범죄발생비율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2012년 마포구 염리동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본 사업은 한국형사정책연구소의 분석결과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출처 :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CCTV 통합관제센터

서울시는 현재 49,184대의 CCTV를 설치하고 25개 자치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에서는 CCTV를 365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서, 경찰서 등과 공조하여 즉각 현장에 출동합니다.

〈출처 :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마포구 염리동 사례

- 운동시설 · LED방범등 · CCTV · 반사경 설치, 눈에 띄는 색상으로 도색, 지역주민 네트워크 구성
- 디자인 적용 이후 범죄발생 건수 대폭 감소 / 주민 만족도(83.3%) 및 범죄예방 효과 인식(78.6%) 향상
- 260개 기관 5,720여명 현장 방문/ 영국 범죄예방센터(DAC) 학회에 소개, 다큐 제작및 벤치마킹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시는 선진화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119소방방재센터는 황금시간목표제, 출동지령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각종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긴급구조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황금시간목표제 도입

서울시는 인명구조와 재난 확산 방지를 위한 황금시간목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재난 유형별 황금시간을 구축하고, 긴급구조기관 및 책임기관의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신고 시점부터 7분 이내 현장 도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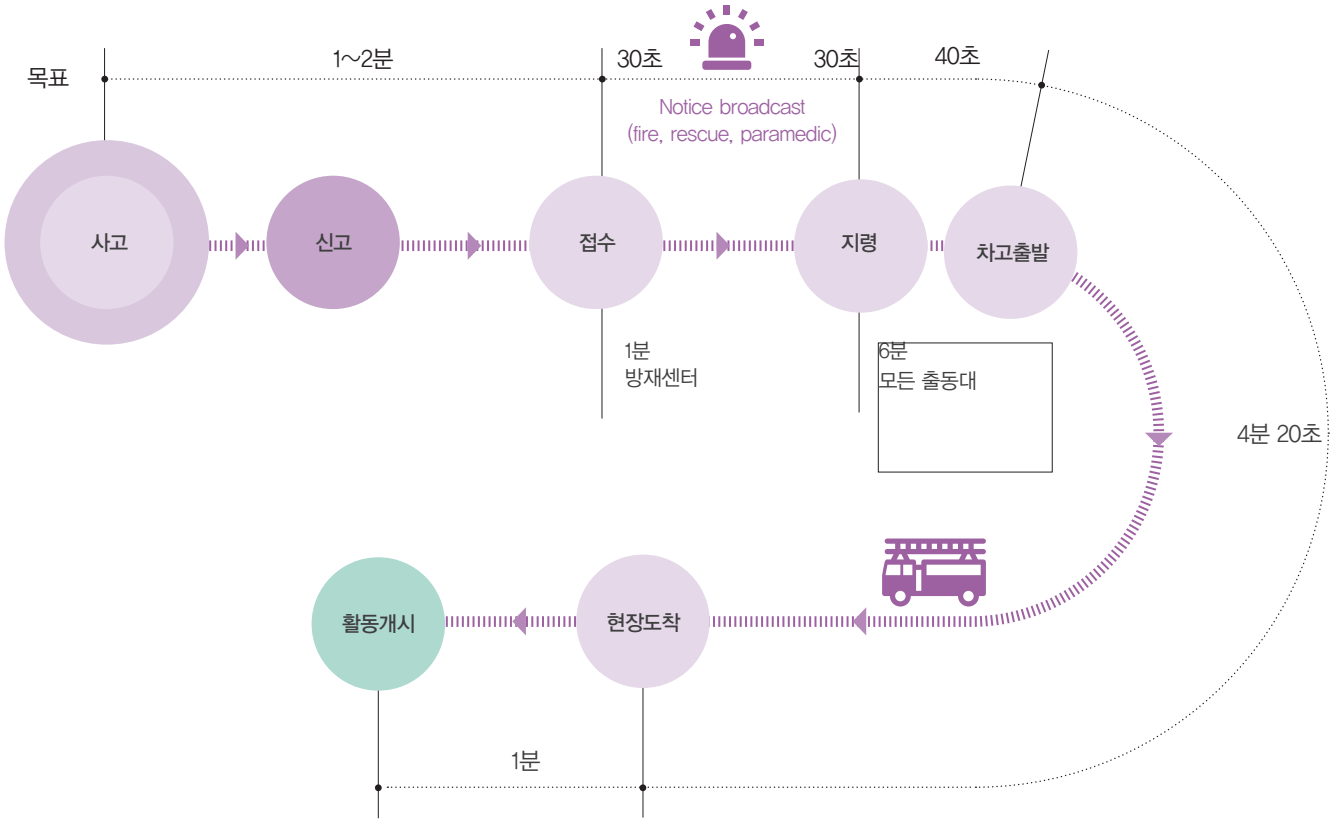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소방본부와 경찰청은 18,521대의 CCTV 영상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하천과 위험지역 감시, 실시간 현장 상황 파악, 골든타임 대피시간 확보 등 적정한 재난 대응 활동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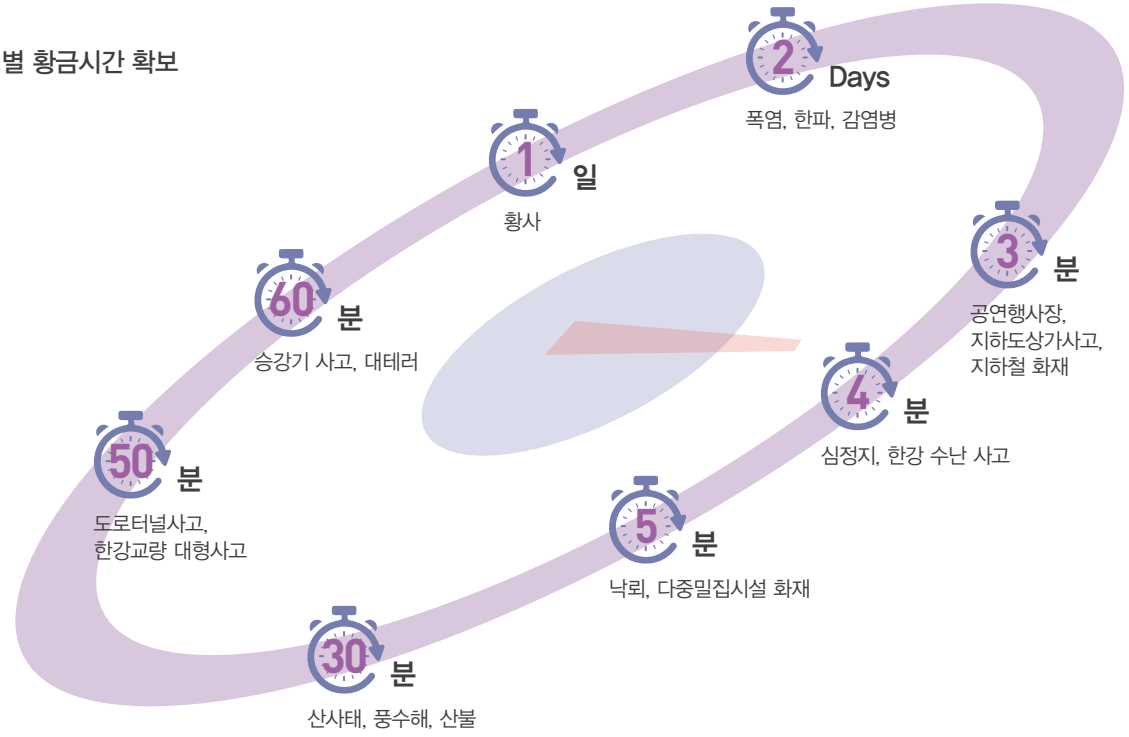
재난 대응 흐름도

119신고접수 시스템	유무선 전화, 문자, 웹,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신고를 119종합상황실로 통합 수신
출동지령 시스템	재난 상황에 따라 최적의 출동대를 편성, 다양한 방법으로 출동명령 하달
출동지령 시스템	종합상황실에서 재난현장 영상정보를 실시간 확인, 체계적인 현장 지휘
소방안전지도 시스템	출동 단계부터 화재 대응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웹 기반 작전 지도
활동정보통계 시스템	재난현장 활동 정보를 집약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

재난 대응 흐름도



재난 유형별 황금시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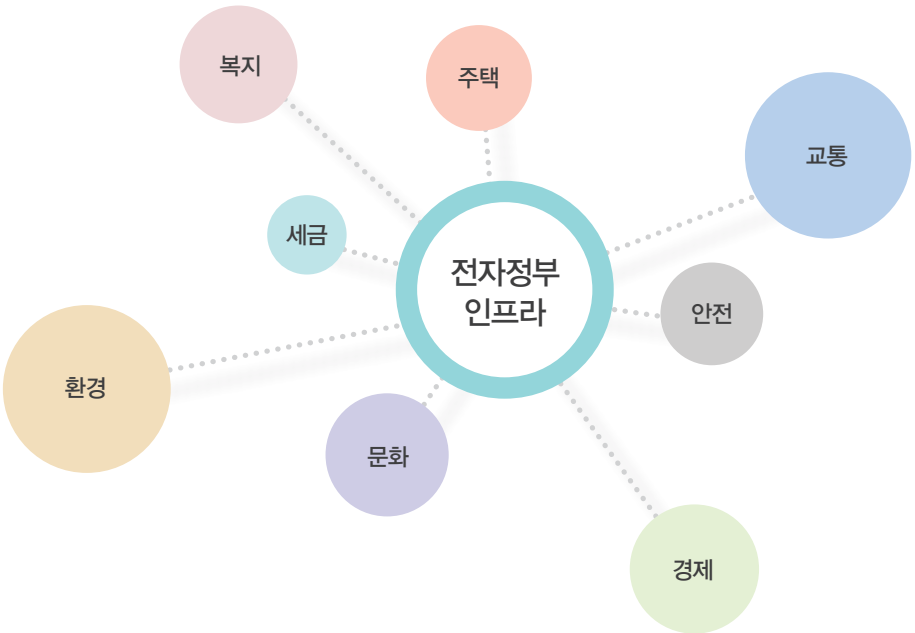
02.
서울의 전자정부 서비스

서울시는 최첨단 IT 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미국 럿거스대(Rutgers University)가 발표하는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2003년 이후 14년 동안 7회 연속 1위 를 달성하여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디지털 역량강화를 통한 행정능률 · 투명성 제고, 세계 도시의 정보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2010년 WeGO(세계스마트시티기구)를 창립하여 세계도시전자정부 교류협력을 촉진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자정부 인프라

IT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도시계획, 문화, 관광, 교통, 주택 등 시정 전 분야에 걸쳐 470종의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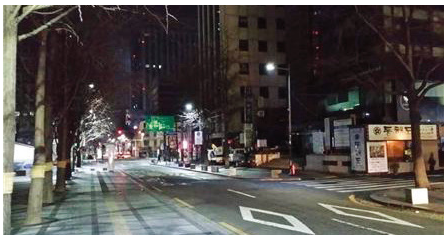
빅데이터로 도시문제 해결

- 빅데이터를 활용 심야버스 최적 경로 분석 및 노선 결정
-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사고 분석 및 교통사고 줄이기
- 생계형 자영업자 보호 육성을 위한 상권분석서비스 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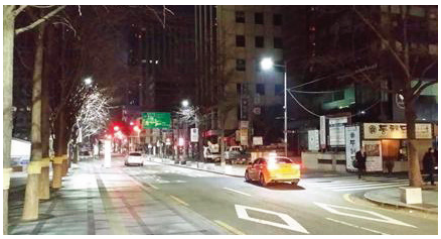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도시 관리

스마트 도로조명, 쓰레기통, 주차 정보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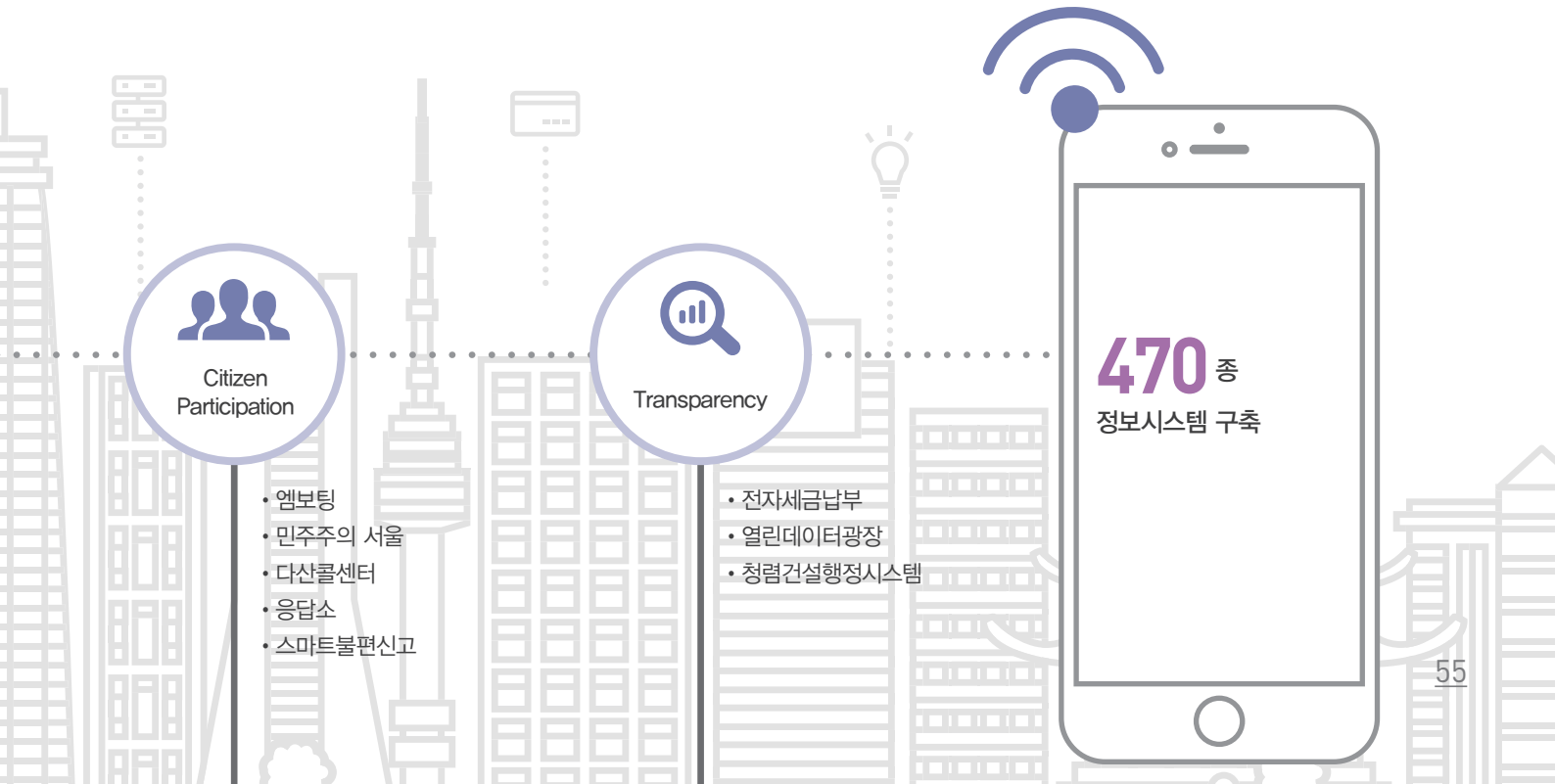
사람과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자동 조절되는 도로조명



차량의 움직임이 없을 때 20% 밝기



차량의 움직임이 있을 때 100% 밝기



시민과 소통하는 도시

엠보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실시간 투표 방식으로 수렴하기 위해 개발한 스마트폰 앱(App)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질문하고 투표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투표 앱입니다.

응답소

기존의 31개 민원 접수 채널을 하나의 채널로 통합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시민들은 응답소의 인터넷, 모바일, SNS, 전화 등을 이용해 모든 분야의 민원과 제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불편신고

시설물, 교통, 환경 등 각종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위치를 지도 위에 표시하고,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어 지역의 현안문제 분석과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민주주의 서울

'내가 상상한 정책을 현실로!'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시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책으로 실현하는 시민 제안 시스템으로, 누구나 어떤 의견이든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산콜센터

서울시와 구청의 각종 전화번호를 120 하나의 번호로 통합, 전화 한 통으로 24시간 빠르고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전화, 문자 상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상담,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디지털 시민시장실

서울시의 각 부서의 167개 시스템(열린 데이터광장, 교통정보센터, 통합안전상황실 등)에서 관리되는 천 만 건의 데이터와 서울시내 중요지점 CCTV 800여대의 정보를 실시간 통합 시각화한 시스템으로 서울시 주요정책 및 추진사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투명한 도시

전자세금납부(E-TAX)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 25개 자치구에서 부과한 공과금을 각종 온라인 매체를 통해 납부하는 납세편의시스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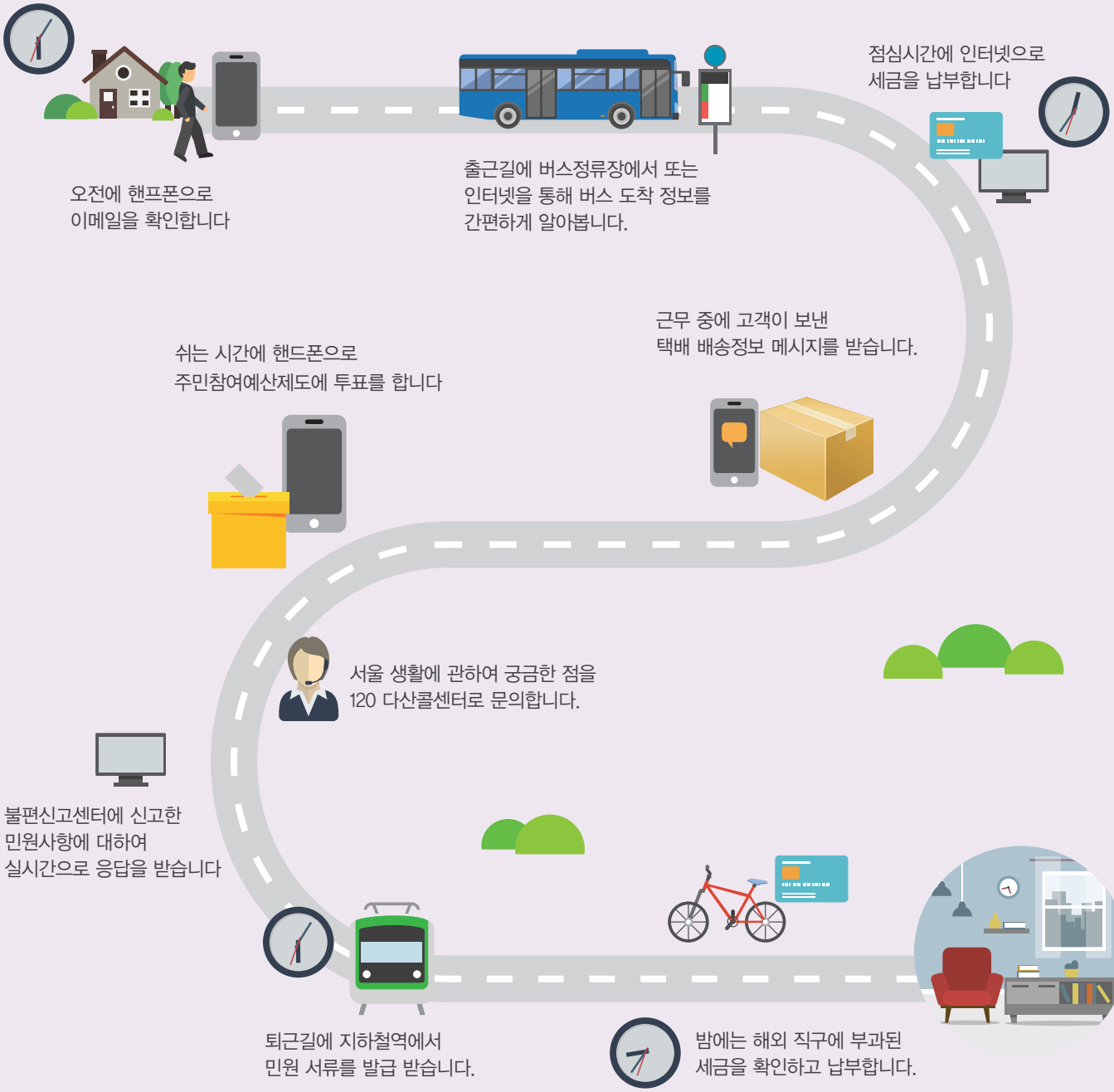
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의 공공데이터를 가공하지 않은 원문(Raw data) 형태로 시민에게 제공하는 웹사이트입니다. 현재 교통, 환경, 도시 관리 등 10개 분야에서 4,607여 종의 데이터셋과 8,813여 종의 서비스를 무료 제공 중입니다.

청렴건설행정시스템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건설 사업을 관리하는 건설정보관리시스템과 건설공사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의 정보가 건설알림이를 통해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됨으로써 반부패 투명 건설행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와
함께한 서울 시민의 하루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공유사업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중 도시 인구 비율은 1950년 30%에서 2014년 현재 54%에 이르렀고, 2050년에는 6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UN, 2014). 갑작스러운 도시 인구 집중은 사회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도시에서 주택부족, 물 부족, 교통체증, 범죄율 증가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서울은 이러한 도시문제를 단기간에 극복하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서울의 발전 경험과 지식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우수정책을 외국 도시와 공유하는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단기 해외도시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정책 컨설팅, 전문가 파견,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식 공유,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정책기획 / 총괄조정 / 유관기관 협력
국제네트워크 / 국제협력

서울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 도시계획
- 주택
- 교통
- 에너지
- 폐기물
- 상하수도
- 도시안전
- 전자정부

서울시 인재개발원
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서울연구원

서울정책수출사업단

해외도시 공무원 역량강화프로그램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공유사업 전문기관
(전문가 파견, 정책컨설팅, 민관협력사업 등)

해외도시 연구
해외도시 적용가능 정책발굴, 개발

해외공무원
초청연수 및 현장견학

온·오프라인
지식공유사업

민관협력
프로젝트

정책컨설팅

전문가 파견

서울정책아카이브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발전경험과 지식을 해외도시와 공유하기 위하여 행정 분야별 도시정책 DB를 서울정책아카이브에 구축,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정책아카이브는 해외도시와의 소통 창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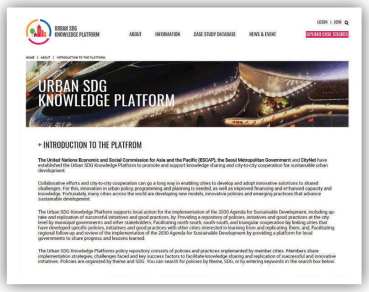
seoulsolution.kr

세계도시 정책공유 온라인플랫폼: Urban SDG Knowledge Platform

서울시, UNESCAP, CityNet이 공동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세계도시 정책공유 온라인플랫폼은 UN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년~2030년)에 대한 도시차원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각종 도시문제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별 우수정책 공유, 세계도시 및 국제기구 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세계도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www.urbansdplatform.org

서울정책아키이브



Urban SDG Knowledge Platform

해외도시공무원 초청연수 및 시설견학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는 서울시의 도시발전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해외도시 공무원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중·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기프로그램(7~10일 과정)

- 분야 : 교통, 전자정부, 도시관리, 상수도
- 서울시 우수정책에 대한 가의 및 정책 현장 견학
- 운영기관 : 서울시국제연수원(인재개발원)

hrd.seoul.go.kr/shrdc

장기프로그램(2년 과정)

- 분야 : 도시계획, 시정 체험 인턴 과정
- 도시계획 석사, 시정 체험 인턴 과정
- 운영기관 : 서울시립대

isus.uos.ac.kr

서울정책컨설팅단 운영

서울시는 도시정책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연구원, 교수 등)로 구성된 서울정책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도시의 정책공유 요청 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즉시 파견하여 현지조사 실시, 정책컨설팅, 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정책 컨설팅단

9개 분야 83명

교통 / 상하수도 / 전자정부 / 도시철도 /
도시계획 / 환경 / 주택 / 소방/ 세무

전문가 인력풀 83인

해외도시협력관 파견

해외도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시 공무원을 해당도시에 파견하여 양 도시 간 정책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 운영

I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공유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우수 정책 공유사업만을 전담하는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Seoul Urban Solution Agency)'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기관

서울특별시
www.seoul.go.kr

기획재정부
www.mosf.go.kr

외교부
www.mofa.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
www.kotra.or.kr

한국국제협력단
www.koica.go.kr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해외건설협회
kor.icak.or.kr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한국개발원
www.kdi.re.kr

한국개발원
www.krihs.re.kr

중소기업중앙회
www.korcham.net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www.kbiz.or.kr

Korea Planning Association
www.kpa1959.or.kr

서울연구원
www.si.re.kr

서울시립대
www.uos.ac.kr

세계은행
olc.worldbank.org

아시아개발은행
www.adb.org

유엔해비타트
unhabitat.org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www.unescap.org

이클레이
www.iclei.org

시티넷
citynet-ap.org

세계스마트시티기구
www.we-gov.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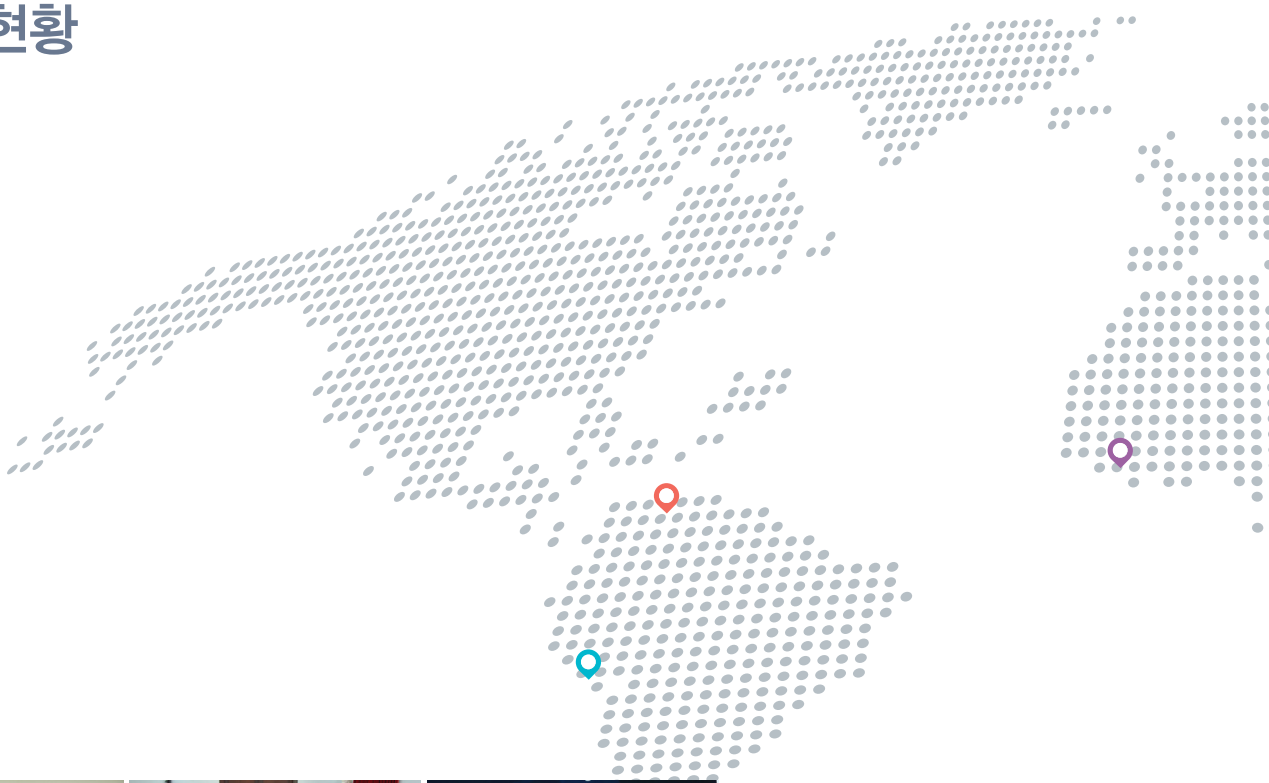
세계도시정상회의
www.worldcitiessummit.com.sg

메트로폴리스
www.metropolis.org

메가시티 싱크탱크 연합회
global.si.re.kr

세계도시 정책공유 온라인플랫폼
www.urbansdgplatform.org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진출 현황



교통(24)

중국(베이징)
뉴질랜드(웰링턴)
뉴질랜드(오클랜드)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콜롬비아(보고타)
태국(방콕)
그리스(아테네)
몽골(울란바토르)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코트디부아르(아비장)
사우디(메카)
말레이시아(말라카)
이집트(카이로)
아제르바이잔(바쿠)
필리핀(메트로마닐라)
가나(아크라)
스리랑카(콜롬보)
베트남(다낭)
인도네시아(반둥)
콜롬비아(재무부)
케냐(나이로비)

상수도(4)

페루(찬차마요)
인도네시아(중부자바)
파푸아뉴기니(포트모르즈비)
브루나이(브루나이)

전자정부(8)

모잠비크공화국(마푸토)
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
인도(뭄바이)
콜롬비아(정보통신부)
태국 · 우크라이나 · 요르단 · 베트남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우크라이나(키예프)
인도네시아(반둥)

서울시 우수정책공유사업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을 주십시오.

서울시 해외도시협력 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E-mail policyshare@seoul.go.kr
Website https://seoulsolution.kr
Tel +82-2-2133-5272

도시철도 · 경전철(8)

방글라데시(치타공-친키아스타)
미얀마(양곤)
베트남(호치민)
콜롬비아(콜롬비아개발은행)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필리핀(메트로마닐라)

도시계획(2)

베트남(다낭)
미얀마(한따와디 및 양곤주 남부)

환경(2)

중국(후난성/허난성)
필리핀(메트로마닐라)

소방(1)

방글라데시(소방방재청)

교육(2)

에티오피아(아디스아바바)
인도(판짐, 심라, 후블리)

콘텐츠 개발(2)

사례집제작
ITS가이드북개발

2019년 12월 제작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nglish.seoul.go.kr